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以文爲詩 개념 정립에 대한
비판적 고찰

金 聖 凡

濟州大學校大學院

中語中文學科

2023年 08月

以文爲詩 개념 정립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김 성 범

제주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지도교수 최 석 원

김성범의 문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6월

심사위원장

趙成植



위 원

鄭啓暻



위 원

崔哲元



【국문초록】

중국은 ‘시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 문학사상 詩는 가장 중요한 문학 장르로 여겨진다. 그 중 唐詩는 중국 고전시가의 典範을 뜻하는 용어로 정착된 것에 반해 宋代에 이르러서는 시가 쇠퇴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宋代 형성된 宋詩만의 독특한 면모와 관련이 있다. 宋詩는 서정을 중심으로 하는 唐詩와는 달리 문인 개인의 주장과 의견을 시에 담는 시의 의론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형식면에서도 엄정한 율격을 바탕으로 지어진 唐代 율시의 형식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의 작시 형태가 확인되는데, 이를 ‘宋詩의 산문화’ 경향으로 평가한다. 이와 같은 의론화 또는 산문화를 ‘문으로서 지은 시’ 이른바 以文爲詩라고 규정하고 이는 곧 송시를 대변하는 하나의 문학 용어로 정착되었다.

以文爲詩가 평어로서 처음 등장한 것은 陳師道の 《後山詩話》에 수록된 黃庭堅의 언급과 陳師道 본인의 韓愈 시의 대한 평가에서이다. 그들의 언급은 “詩와 文에는 각각 體가 있는데 韓愈의 詩는 以文爲詩 하여 本色이 아니다.” 혹은 “공교하지 않다.” 라는 다소 회의적인 언급이었던 것에 반하여 현재 以文爲詩를 작품에 체현한 인물로 黃庭堅이 포함되기도 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언급하였듯 以文爲詩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韓愈의 시에 대한 평가였으며 후인들도 그 시작을 韓愈라고 지적한 것과는 달리 현재 以文爲詩의 수법으로 지은 시로 분석하는 작품들이 韓愈보다 앞선 시기의 문인들의 작품이기도 하며, 陶淵明 혹은 杜甫가 以文爲詩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논의도 존재한다. 또한, 以文爲詩를 비판한 宋代 문인으로는 嚴羽가 대표적인데, 그가 가장 추승하였다는 杜甫가 以文爲詩의 시작이라 분석되는 상황은 모순적으로 보인다.

이는 대다수의 중국 문예이론이 내포하고 있는 ‘모호한 의미범주’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필자는 선행연구들과 전인들의 언급을 바탕으로 규정된 以文爲詩의 개념을 검토하여 보다 명확한 以文爲詩의 의미 범주에 대한 탐색을 진행하고자 한다.

키워드: 以文爲詩, 以議論爲詩. 以文字爲詩, 以才學爲詩. 以詩爲文, 韓愈

【목 차】

▣ 국문초록	i
▣ 목차	ii
I. 서론	1
1. 연구목적	2
2. 선행 연구 검토	8
II. 以文爲詩에 대한 개념 규정의 시도	13
1. 敍事와 以義論爲詩	14
2. 以文字爲詩, 以才學爲詩, 用事의 다용	24
3. 산문 수법의 활용	30
III. 以文爲詩 개념 정립에 대한 비판적 고찰	35
1. 以文爲詩 시작에 대한 諸說이 지닌 모순	35
2. 文의 의미가 지닌 모호함	42
IV. 결론	46
▣ 참고문헌	48
▣ ABSTRACT	50

I. 서론

中國의 詩는 古代에서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 中國 文學史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해왔으며, 중국 전통 시기 詩文學은 《詩經》을 시작으로 다양한 시대를 거쳐 풍부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할 만하다. 그중에서도 唐代에 창작된 詩歌文學은 중국 전통 詩史에서 가장 큰 문학적 성취를 거둔 것으로 여겨지면서 ‘唐詩’는 비단 창작 시기를 지칭하는 의미를 넘어 詩歌文學의 典範을 뜻하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중국 고전 시가 당대에 와서 완성도가 정점에 달했다는 말은 당시가 지닌 정제된 운율미와 수묵화 같은 회화적 아름다움 때문일 것이다. 한편 송시는 율시의 퇴조와 함께 고시의 부흥기를 맞으면서 전반적으로 唐詩적 매끄러움과는 다른 미적 지향을 추구했는데, 읽기도 쉽지 않고 맛도 결끄러운 理趣가 강한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후대 시인들의 눈에는 서정을 중심으로 하는 시에서 이성적 논리가 강화되는 추세가 그다지 바람직스럽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원대 이후 사람들은 딱딱하고 짧은 송시 대신 시인적 풍류를 정감 있게 즐길 수 있는 당시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송시부터 시의 쇠퇴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견해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¹⁾

위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 唐詩는 唐代에 창작된 詩라는 개념을 벗어나 문학적 전범으로서 인식되었음은 쉬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唐代 바로 그 뒤에 위치한 宋代 문인들의 작품들은 唐詩와는 또 다른 무엇으로 인식되면서 끝없는 唐·宋 詩 우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본고는 宋詩를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특징 중 하나인 ‘以文爲詩’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중국 시가문학사상 諸家들의 ‘以文爲詩’에 대한 인식을 검토함과 동시에 文으로의 詩 쓰기의 구체적인 면모를 확인하고자 한다.

1) 송용준, 오태석, 이치수, 《宋詩史》, 역락, 2004, pp.1-2.

1. 연구목적

당인은 시로써 시를 지었으나, 송인은 문으로써 시를 지었다. 당시는 성정을 전달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시경》에 가깝지만, 송시는 의론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시경》에서 멀어졌다.

唐人以詩爲詩，宋人以文爲詩，唐詩主於達性情，故於《三百篇》近；宋詩主於議論，故於《三百篇》遠。²⁾

清代文人 吳喬는 唐代의 시가문학과 宋代의 시가문학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성정을 중시한 唐詩는 전통 시대 시의 본질로 여겼던 《詩經》의 본의와 부합하지만 의론을 중시한 宋代의 시는 《詩經》의 본질과 멀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전통시대 시가 요구하던 가치는 詩緣情而綺靡³⁾와 상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以文爲詩’로 대변되는 宋詩는 그가 생각하던 전통 시가의 가치와는 다른 것이었다고 하겠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詩經》 또한 의론이 담긴 작품이 적지 않음⁴⁾을 홀시한 것이며 중국 전통시가의 또 다른 본질인 ‘詩言志’와도 들어맞지 않는다. “시로 뜻을 말한다(詩言志)”에서의 ‘志’는 정감은 물론 시인의 사상까지 포괄하는 뜻이기 때문이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 의론을 담는 소위 以文爲詩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문인들은 여전히 존재했기에 이에 대한 비판은 明·清代까지 이어졌다.

2) 吳喬, 《圍爐詩話》 卷之二; 郭紹虞 編選, 富壽蓀 校點, 《清詩話續編》, 木鈴出版社, 民國72年, p.519.

3) 陸機, 〈文賦〉; 郭紹虞 主編, 王文生 副主編, 《中國歷代文論選》 第一冊, 上海古籍出版社, 2001, p.171.

4) 沈德潛, 《說詩晬語》 卷下: “사람들은 시는 성정을 중심으로 해야지 의론을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소아, 대아에 의론이 없는 것이 어디 있는가?”(人謂詩主性情, 不主議論. 似也, 而亦不盡然. 試思二雅中何處無議論?); 王夫之等撰, 丁福保編, 《清詩話》, 明倫出版社, 民國60年, p.553.

5)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下)》, 국학자료원, 2006년. pp.307-308.

詩言志: 일반적으로 지(志)는 사람의 내면에 담겨있는 정감을 의미하며, 사상과 감정이라는 두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개인의 사상과 감정이 언어를 써서 표현될 때 시라는 문학 장르가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지(志)의 해석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정감과 사회적 지위의 두 가지 뜻이 다 있었으나, 후대로 가면서 사회정치적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해석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상대하여 연정설(緣情說)이 제기되었다. 시연정설은 후에 중국문학사에 정치사회적 방면으로 해석되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유가 문학사상의 대표적 글인 《모시서》에도 이와 같은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는 후에 주로 순문학적 관점에서 시가 아름다움을 특징으로 삼는다고 한 조비(曹丕)나 육기(陸機)의 시연정(詩緣情)설과 대비되며, 중국문학사의 흐름을 이끌어가게 된다.

吳喬도 지적하였듯 以文爲詩는 宋代 문인의 대표적인 작시 경향이었으나 趙翼은 《甌北詩話》에서 그 시작은 韓愈라고 언급한다.⁶⁾ 이러한 韓愈 시에 대한 宋人들의 비평은 찬반이 엇섞여 있는데 이를 살펴볼 수 있는 宋代 문인들의 언급이 있다.

沈括은 “韓愈의 詩는 押韻한 文일 따름이니 비록 글이 씩씩하고 아름다우며 내용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격식이 詩에 가깝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呂惠卿는 “詩란 바로 이와 같아야 하니. 내 생각으로는 詩人 이레로 韓愈 만한 이가 없다.”고 하였다. 王存은 沈括이 옳다고 하고. 李常은 呂惠卿이 옳다고 하여 네 사람이 서로 따지고 비난하였는데, 오래도록 결말이 나지 않았다.

存中曰：韓退之詩乃押韻之文耳，雖健美富贍，而格不近詩. 吉甫曰：詩正當如是，我謂詩人以來，未有如退之者. 正仲是存中，公擇是吉甫，四人交相詰難，久而不決.⁷⁾

위의 인용문에서 보이는 논쟁은 羅聯添이 설명한 바와 같이 以文爲詩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宋代 문인들 사이에서도 韓愈의 시에 나타나는 ‘압운한 문’을 과연 시의 격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⁸⁾

程千帆은 北宋 중엽이 以文爲詩가 시가 창작의 문제로 인식되어 쟁론이 시작된 시기라고 말한다. 그는 北宋 중엽은 古文(散文)이 時文(駢文)을 대체하여 주된 문체가 된 시기이며 唐詩에서 宋詩로의 풍격 변화를 이루며 宋詩가 독특한 면모를 가진 시기라 말하는데, 이 시기 以文爲詩가 쟁론이 된 것은 北宋 시인들이 歐陽修의 영향 아래 韓愈의 시를 배운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⁹⁾

한유의 필력은 어디에 쓰더라도 부적절한 곳이 없으며 시를 문장의 말단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시에서 말하길: “정이 많아 술 친구 그리워하고, 일이 한가해지면 시인이 된다.” 그러니 담소하는 것에 의지하고, 해학에 도움을 받으며 사람들의 감

6) 趙翼, 《甌北詩話》卷五: “以文爲詩,自昌黎始;至東坡益大放厥詞,別開生面,成一代之大觀.”; 郭紹虞編選, 富壽蓀校點, 《清詩話續編》, 木鈴出版社, 民國72年, p.1195.

7) 魏慶之 著, 王仲聞 點校, 《詩人玉屑》(下), 中華書局, 2007, p.470.

8) 羅聯添, 〈論韓愈古文幾個問題〉, 《唐代文學研究》第3輯, 1992. p.349.

9) 程千帆, 《歷代進士行卷與文學, 古詩考察》, 武漢大學出版社, 2009, p.174.

정을 펴내고 사물의 모습을 형용하는 일을 모두 시에 담아 그 묘함을 다하고 있다. 이런 웅대한 작가를 논하기엔 부족하다.

退之筆力，無施不可，而嘗以詩爲文章末事。故其詩曰：“多情懷酒伴，餘事作詩人”也。然其資談笑，助諧謔，敘人情，狀物態，一寓於詩，而曲盡其妙。此其雄文大手固不足論。¹⁰⁾

위의 《六一詩話》를 통해 알 수 있듯이 歐陽修는 韓愈의 필력은 부족함이 없어 시에 있어서도 여러 감정을 펴내고 사물의 모습을 형용하는 데에도 성공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程千帆은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歐陽修의 이러한 평가와 “韓愈는 시를 문장의 말단이라 여겼다.”라고 한 언급을 통해 위의 《六一詩話》의 논의는 이미 以文爲詩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분석하였다.¹¹⁾ 즉, 이미 歐陽修가 以文爲詩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의 시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그는 전인들의 언급에서 韓愈의 시와 歐陽修의 시의 전승관계를 분석¹²⁾하여 歐陽修는 韓愈의 시를 배웠으며 歐陽修의 제창과 그 동료들의 창작실천으로 宋詩의 독특한 면모와 풍격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宋詩의 풍격은 韓愈 시(以文爲詩를 포함)의 학습과 불가분 관계라고 말한다.

程千帆이 언급한 바와 같이 以文爲詩는 北宋 시대에 본격화되었으며, 蘇門四學士 그리고 江西詩派의 三宗이라 불리는 陳師道の 《後山詩話》에 以文爲詩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직접 언급되었다.

黃庭堅이 이르길: “...시와 문에는 각각 體가 있는데, 韓愈는 文으로 詩를 지었고, 杜甫는 詩로 文을 지었으니 공교하지 못하다.”라고 하였다.

10) 何文煥, 《歷代詩話》, 中華書局, 1983, p.272.

11) 程千帆, 《歷代進士行卷與文學, 古詩考察》, 武漢大學出版社, 2009. p.178.

12) 程千帆, 《歷代進士行卷與文學, 古詩考察》, 武漢大學出版社, 2009. p.179. 張戒, 《歲寒堂詩話》: “歐陽公詩學退之, 又學李太白.(구양수는 시에서 한유를 배웠고, 또한 이백을 배웠다.); 丁仲祐, 《續歷代詩話》, 藝文印書館, 民國乙卯. p.543. 劉熙載, 《藝概》卷2, 〈詩概〉: “東坡謂歐陽公 論大道似韓愈, 詩賦似李白. 然試以歐詩觀之, 雖曰似李, 其刻意形容處, 實于韓爲逼近耳.”(“소식은 구양수에 대해 ‘大道を 논한 것은 한유와 같고, 詩賦는 이백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양수의 시를 살펴보면 이백과 같아 보이니 뜻을 새기고 모습을 담아낸 곳은 실제 한유와 매우 비슷하다.”) 등; 程千帆, 《歷代進士行卷與文學, 古詩考察》, 武漢大學出版社, 2009, p.179에서 재인용.

黃魯直云：“…詩文各有體，韓以文爲詩，杜以詩爲文，故不工爾。”¹³⁾

韓愈는 文으로 詩를 지었고, 蘇軾은 詩로써 詞를 지었다. 이것은 마치 教坊에서 雷大使가 추는 춤이 천하의 공교로움을 다 추구했을지라도, 결국은 本色이 아닌 것과 같다.

退之以文爲詩，子瞻以詩爲詞，如教坊雷大使之舞，雖極天下之工，要非本色。¹⁴⁾

위의 예문을 통해 보건대 黃庭堅과 陳師道는 以文爲詩의 작시 경향을 시의 본색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고 할 만하다. 黃庭堅은 시와 문에는 나름의 체제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文을 활용해 시를 짓거나 시를 활용해 文을 짓는 韓愈와 杜甫의 창작 경향은 공교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⁵⁾ 陳師道 역시 공교로움을 다한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체제의 혼종과 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은 본색이 아님을 설명하며 以文爲詩에 대한 회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즉, 以文爲詩가 평어로서 처음 언급된 내용은 다소 부정적인 견해로 보이는데, 이러한 韓愈 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다른 문인들의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蘇軾이 이르길：“…韓愈는 詩에 대해 본래 아는 바가 없다. 재주가 좋고 그것을 좋아했을 따름이다.”

蘇軾云：“…退之於詩，本無解處，以才高而好爾。”¹⁶⁾

韓愈의 시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가 반반이다. 좋아하는 이는 杜甫라 할지라도 그 미치지 못한다고 여기고, 싫어하는 이는 그의 시에서 배울 것이 없다 한다.

韓退之詩，愛憎相半。愛者以爲雖杜子美亦不及，不愛者以爲退之于詩本無所得。¹⁷⁾

13) 何文煥, 《歷代詩話》, 中華書局, 1983, p.303. 이 구절은 黃庭堅의 언급을 陳師道가 《後山詩話》에 기록한 것이다. 이는 以文爲詩에 대한 黃庭堅의 의견이지만, 본고에서 함께 제시된 陳師道의 언급을 미루어 본다면 陳師道 또한 그와 의견이 상통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14) 何文煥, 《歷代詩話》, 中華書局, 1983, p.309.

15) 黃庭堅이 韓愈의 시에 대하여 인정한 바가 적다는 언급 또한 있다.

胡仔, 《茗溪漁隱叢話》: “山谷於退之詩,少所許可.”; 程千帆, 《歷代進士行卷與文學, 古詩考察》, 武漢大學出版社, 2009. p.181에서 재인용.

16) 陳師道, 《後山詩話》; 何文煥, 《歷代詩話》, 中華書局, 1983, p.304.

17) 張戒, 《歲寒堂詩話》; 丁仲祐, 《續歷代詩話》, 藝文印書館, 民國乙卯. p.552

張戒는 韓愈의 시를 좋아하는 이와 싫어하는 이가 반반이라 말하며 蘇軾조차 韓愈는 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비평을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以文爲詩는 宋詩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평어 중 하나로 여겨지며 以文爲詩를 창작에 체현한 문인들로 蘇軾, 黃庭堅과 그를 종주로 하는 江西詩派가 포함됨은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程千帆은 이런 문예이론과 창작실천 사이의 모순은 흔히 볼 수 있으며, 歐陽修의 제창과 기타 시인들의 지지하에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조류가 시단에 형성되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⁸⁾ 이렇게 시작되어 형성된 宋詩의 풍격은 以文爲詩와 함께 후인들의 여러 비평을 받았다.

①. 근래 제자들은 기이하고 특이한 것을 따져 배우며, 문자로 시를 짓고, 채주와 학식으로 시를 지으며 의론으로 시를 지으려하니 어찌 공교하지 않겠는가? 끝내 옛사람의 시는 아니다.

近代諸公乃作奇特解會,遂以文字爲詩,以才學爲詩,以議論爲詩,夫豈不工? 終非古人之詩也.¹⁹⁾

②. 宋人은 대부분 시로 의론하기를 좋아하는데, 무릇 시로 의론하려면 어찌 문으로 짓지 않고 시로 지었는가?

宋人多好以詩議論,夫以詩議論,則奚不爲文以爲詩哉?²⁰⁾

③. 누군가 唐人은 시로써 시를 지으며 성정을 주로 하여 《詩經》에 가까우나 宋人은 문으로 시를 지어 의론을 주로 하니 시경과 멀어졌다고 하였다. 이는 잘못된 말이다. 唐人의 시에도 의론을 하는 자가 있다. 바로 杜甫이다. 杜甫의 오언에 의론이 많고, 〈赴奉先縣詠懷〉과 〈北征〉 그리고 〈八哀〉 등의 장편에서 어느 작품에 의론이 없는가? 의론을 송나라 사람들에게 돌리는데, 어떠한가? 저들은 무엇이 의론이고 무엇이 의론이 아닌지 알지 못했는데, 함부러 시대를 구분하겠는

18) 程千帆, 《歷代進士行卷與文學, 古詩考察》, 武漢大學出版社, 2009, pp.181-182.

19) 何文煥, 《歷代詩話》, 中華書局, 1983, p.688.

20) 屠隆, 《由拳集》, 卷23, 《文論》; 程千帆, 《歷代進士行卷與文學, 古詩考察》, 武漢大學出版社, 2009, p.187에서 재인용.

가? 또한 《詩經》의 小雅와 大雅에도 의론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 그저 《詩經》도 모르면서 후인의 시를 알겠는가?

有謂唐人以詩爲詩,主性情,於三百篇爲近. 宋人以文爲詩,主議論,於三百篇爲遠. 何言之謬也! 唐人詩有議論者,杜甫是也. 杜五言古,議論尤多. 長篇如〈赴奉先縣詠懷〉, 〈北征〉及〈八哀〉等作,何首無議論? 而以議論歸宋人,何歟? 彼先不知何者是議論,何者爲非議論,而妄分時代邪? 且三百篇中,二雅爲議論者,正自不少. 彼先不知三百篇,安能知後人之詩也! 21)

위에서 인용한 예문 중 ①, ②는 각각 南宋 嚴羽, 明代 屠隆의 언급으로 의론을 중심으로 한 시들에 대해 비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歸盛唐’을 제창하던 嚴羽는 “근래 제가들이 문자, 재주, 학식과 의론으로 시를 짓는 것에 대하여 끝내 옛사람 시가 아니다.”라며 宋詩를 비판하였고, 明代 屠隆은 시와 의론은 어울리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미 언급하였던 清代 吳喬 또한 문으로써 시를 지은 宋代 의론 중심의 작시 경향은 《詩經》의 정신과 멀어졌다고 비판하였다.22) 하지만, 清代 葉燮(③)은 杜甫의 시와 《詩經》의 兩雅에도 의론이 많은 것을 말하며 以文爲詩를 반대하는 자들을 비판하였으며, 清代 沈德潛 또한 “시의 본질인 《詩經》의 兩雅에서 조차 의론을 다루는데 서정을 중심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23)라며 의론시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하여 반박한다. 의론시는 唐·宋詩의 우열 논쟁의 주안점이 되기도 하며 以文爲詩를 규정하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살펴본 일련의 논의들에서 以文爲詩를 비판하는 이들의 언급을 통해 살펴보면 以文爲詩는 ‘문의 체로 지은 시’이며 ‘의론을 담은 시’로 정의될 수 있겠다.

馬茂軍은 이러한 以文爲詩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는 ‘詩必盛唐’을 제창하고 辨體를 중시한 明代에는 以文爲詩를 變體로 인식하여 비판받았지만, 清代 그 인식은 변하여 杜甫, 韓愈, 蘇軾, 黃庭堅의 以文爲詩가 추종되며 以文爲詩를 되려 正體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고 분석한다. 또한, 신문화운동 중 신시-백화시 쓰기의 제창과 그 운동을 주창하던 胡適의 언급24)은 以文爲詩의 기준

21) 葉燮, 《原詩》, 外篇; 王夫之撰, 丁福保編, 《清詩話》, 明倫出版社, 民國60年, p.607.

22) 관련 내용은 본고의 2쪽과 각주 2)를 참고할 것.

23) 관련 내용은 본고의 2쪽과 각주 4)를 참고할 것.

24) 胡適說: “由唐詩變宋詩無甚玄妙, 只詩作詩更近於作文! 更近於說話.”; 馬茂軍, 〈“以文爲詩”

부정적 인식을 뒤바꾸었다고 설명한다.²⁵⁾

하지만 宋代 以文爲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내놓은 黃庭堅²⁶⁾이 以文爲詩의 전범이라 보는 시각이 존재하며,²⁷⁾ 以文爲詩의 시작이라 평가되는 韓愈²⁸⁾보다 앞선 杜甫가 以文爲詩의 대표적인 문인으로 분석되는 점은²⁹⁾ 현재 以文爲詩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완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본고의 논의는 宋代 문인들이 체제의 혼종과 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은 본색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대에 宋詩가 ‘文’을 통해 구현된 ‘詩’라고 평가받는 사실과 문인들의 以文爲詩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宋代 문인들이 제기한 以文爲詩가 지니고 있는 구체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곧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以文爲詩의 범주 그리고 문학적 주장과 창작 실제에서 나타나는 부조화의 현상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唐詩와 宋詩를 가치론과 단선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이다.

2. 선행 연구 검토

위에서 인용한 전인들의 언급을 통해 보건대, 그들이 말하는 以文爲詩는 형식의 층위에서 體의 혼용 양상과 내용적 층위에서 의론을 다루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以文爲詩에 대해 찬동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의 의견이 엇섞이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以文爲詩에 대한 논쟁은 宋代 이후에도 계속 이

話題與中國古典詩學的展開》，《華南師範大學學報》2021年第5輯，p.189에서 재인용

25) 馬茂軍，〈“以文爲詩”話題與中國古典詩學的展開〉，《華南師範大學學報》2021年第5輯，pp.185-189.

26) 周子翼，〈“以文爲詩”解讀悖誤析論〉，《江西社會科學》2022年第8期，pp.84-85. 周子翼은 위 논문에서 《後山詩話》에 기록된 “黃魯直云：杜之詩法出審言，句法出庾信，但過之爾。杜之詩法，韓之文法也。詩文各有體，韓以文爲詩，杜以詩爲文，故不工爾。” 구절을 “杜之詩法出審言，句法出庾信，但過之爾。”과 그 뒤로 나누어 앞부분은 黃庭堅의 언급이나 뒷부분은 黃庭堅의 언급이 아닌 陳師道の 언급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27) 馬茂軍，〈“以文爲詩”話題與中國古典詩學的展開〉，《華南師範大學學報》2021年第5輯. p.179.

28) 신재환，〈《甌北詩話》의 蘇軾 詩에 대한 시학적 관점 探討〉，《퇴계학과 유교문화》51권，2012. pp.201-209. 신재환은 《甌北詩話》의 기록된 내용을 통해 趙翼은 以文爲詩의 시작을 한유 그리고 완성자를 소식으로 인식하였다고 분석하였다.

29) 許總，〈杜甫以文爲詩論〉，《杜詩學發微》，南京出版社，1989，pp.270-278.

어져 왔지만 대다수 단편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宋詩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특징인 以文爲詩는 宋代에서부터 시가 쇠퇴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덧씌워지면서 以文爲詩가 갖는 문학사적 가치와 실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馬茂軍이 설명하고 있듯 清代 以文爲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문인들의 언급을 살펴볼 수 있으며, 백화시 쓰기 운동과 함께 以文爲詩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조명도 이루어지기도 하였다.³⁰⁾ 그 내용들을 토대로 羅聯添은 以文爲詩는 시문에 통달한 자만이 지을 수 있는 것으로 以文爲詩란 문이 시가영역으로 침입하여 ‘詩文合一’을 이루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문학사상의 성공이라고 말한다.³¹⁾ 이러한 연구들은 以文爲詩의 개념과 정의를 다루진 않았지만 기존 詩史上 존재하던 以文爲詩의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인식을 뒤엎으며 이후 연구자들에게 以文爲詩가 詩史 및 詩論上 이루어낸 성과를 부각시켜 후대 연구자들의 以文爲詩의 연구에 대한 가치와 그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³²⁾

程千帆은 韓愈의 以文爲詩가 쟁론이 된 역사적 배경을 서술하며 전인들의 비평을 집대성하여 以文爲詩의 범위와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以文爲詩를 비판하던 이들의 의견에 반박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以文爲詩의 부작용 또한 다루었다.³³⁾ 程千帆이 분석하는 以文爲詩는 크게 두 가지 방면으로, 고문의 장법과 구법을 활용한 시 그리고 의론을 담은 시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以文爲詩를 비판하는 이들의 견해에 대해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하였다. 먼저 韓愈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냄에 있어 고문의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詩作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의론이 결코 시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형상사유를 결코 해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³⁴⁾ 다만, 以文爲詩를 제대로 이행하

30) 해당 연구 성과들을 예거하면 대략 아래와 같다.

錢基博, 〈韓集籀讀錄第六〉, 《論韓愈》, 華正書局, 1935.

朱自清, 〈論以文爲詩〉, 《朱自清古典文學論文集》, 上海古籍出版社, 1980.

夏敬觀, 〈說韓愈〉, 《唐詩說》, 河洛都序出版社, 民國64.

31) 羅聯添, 〈論韓愈古文幾個問題〉, 《唐代文學研究》第3輯, 1992. p.370.

32) 김지영, 〈中國 古典詩歌의 散文의 要素 受容 樣相-中唐에서 北宋까지의 以文爲詩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33) 程千帆, 《歷代進士行卷與文學, 古詩考察》, 武漢大學出版社, 2009, pp.172-195.

지 못하는 시인들에게서 위와 같은 문제들이 노정된다고 한 程千帆의 논의는 以文爲詩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王水照와 閻琦는 以文爲詩에 내재된 함의 규명을 시도한 바 있는데, 그 중 王水照는 “韓愈가 가장 먼저 제창한 것으로 산문의 자법, 구법, 장법과 표현수법을 통해 시가를 창작하는 것”³⁵⁾이라고 규정하였고, 閻琦의 《韓詩論稿》에는 賦體의 특징이 많은 것, 고문장법으로 시를 짓는 것, 고문구법으로 시를 짓는 것, 의론을 시로 표현한 것이라 하였다.³⁶⁾

羅聯添은 〈論韓愈古文幾個問題〉에서 이를 조금 더 구체화하여 虛字의 사용, 文章 맥락의 사용, 의론의 사용 등을 以文爲詩의 구체적 양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고팔미는 이를 재정리하여 ① 賦 수법의 활용, ② 議論 수법의 활용, ③ 古文章法の 활용, ④ 古文句法の 활용, ⑤ 古文字法の 활용을 以文爲詩의 모습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³⁷⁾ 그리고 김지영은 그의 박사논문 〈中國 古典詩歌의 散文의 要素 受容 樣相〉에서 以文爲詩에서의 文은 협의의 文으로 변문을 제외한 시와 구분되는 산문을 뜻하며, 산문은 곧 고문이라는 분석을 바탕으로 文을 정리하여 38) 以文爲詩를 시 속에 산문의 수법을 사용해서 작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그는 以文爲詩의 수법을 의론을 담고 있는 것, 산문 장법을 사용하여 산문의 맥락을 지닌 것, 구법에서는 변구를 사용하고 대구를 기피하며 문법을 강구하여 구식을 산문화시킨 것, 자법에서는 연사, 개사, 어조사와 같은 허사를 다용하고 경전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류하고.³⁹⁾ 시기별, 문인별로 以文爲詩의 흔적을 고찰한 바 있다. 또한, 신재환은 趙翼이 以文爲詩를 시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의

34) 심성호, 〈離騷의 形象思惟〉, 《동방한문학》 제11집, 1995. p.1.

“인간이 객관세계를 인식하고 반영하는 방식은 크게 형상사유와 추상사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형상사유는 문예창작의 주요 사유방식으로써 상상을 통한 구체적·생동적 형상과 결합되는 특징이 있다.”

35) 王水照, 《宋代文學通論》, 河南大學出版社, 1997, p.68.

36) 閻琦, 〈論韓愈의 以文爲詩〉, 《西北大學學報》 1983年2期, 1983, pp.51-58.

37) 고팔미, 〈韓愈의 “以文爲詩”와 그 영향〉, 《中國學》 第38輯, 2011, p.100.

38) 김지영, 〈中國 古典詩歌의 散文의 要素 受容 樣相-中唐에서 北宋까지의 以文爲詩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20.

39) 김지영, 〈中國 古典詩歌의 散文의 要素 受容 樣相-中唐에서 北宋까지의 以文爲詩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p.28-29.

문화에 집중하여 韓愈에게서 시작된 以文爲詩가 蘇軾에 이르러 완성되었다고 말한다.⁴⁰⁾ 馬茂軍은 李商隱의 시에서 敍事와 故事, 人物, 事件 등이 있음을 언급하며 中晚唐의 대부분 시인이 以文爲詩의 추세를 따랐다고 말하는데, 이를 통하여 그는 敍事, 用事가 以文爲詩의 요소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¹⁾

국내외의 연구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자들의 논의를 일람해보면 以文爲詩의 시작은 韓愈에게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시에서 의론을 다룬 것으로 산문에서 나타나는 표현 수사 및 제재를 활용하여 시가를 창작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물론 위의 일련의 논의들은 以文爲詩의 詩史上 갖는 의의와 그 가치를 부각하였고 그 범주를 설정하였으며 그 개념을 명확히 하는 데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다만 대부분의 논의는 전대 문인들의 韓愈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일 뿐만 아니라 분류의 체계성 혹은 모호함을 드러내고 있는 경우들도 존재하는 듯하다. 이러한 체계성과 모호함으로 인하여 以文爲詩의 文이 현대의 散文이 아닌 六義중 賦를 지칭하는 것이라 말하는 견해도 있으며,⁴²⁾ 以文爲詩의 시작에 대한 이설 또한 존재한다. 전인의 언급과 근인들의 연구 대다수는 以文爲詩의 시작은 韓愈라고 말하지만 以文爲詩의 요소를 분석하며 韓愈 이전 문인들의 시에서 以文爲詩 작시 경향을 연구하기도 하고, 陶潛 혹은 杜甫가 以文爲詩 시작의 대표 문인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또한 以文爲詩에 대하여 회의적인 글을 남긴 문인들도 以文爲詩한 작시 경향의 대표 문인으로 분석되기도 하는데, 물론 이는 작자가 추구하는 창작 태도와 창작실천 사이의 간극일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 고대 중국 문예 용어가 그러하듯 以文爲詩의 의미적 범주와 개념적 실체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韓愈를 비롯한 以文爲詩와 관련된 문인들의 논의와 역대 以文爲詩에 대한 언급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당시 以文爲詩가 규정하고 있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더불어 지금까지 대다수의 논의에서 以文爲詩를 韓愈의 시 그리고 현대적 의미의 산문과 시로 규정하여 설명함으로 인

40) 신재환, <《甌北詩話》의 蘇軾 詩에 대한 시학적 관점 探討>, 《퇴계학과 유교문화》 51권, 2012, pp.201-209.

41) 馬茂軍, <“以文爲詩”話題與中國古典詩學的展開>, 《華南師範大學學報》 2021年第5輯. p.188.

42) 周子翼, <“以文爲詩”本義 考論>, 《江海學刊》, 2022.06, p.231.

해 그 범주 및 개념의 모호함을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필자는 전대 시화에 기록된 전인들의 언급과 선행연구에서 시도된 以文爲詩 개념 규정의 내용들을 서사와 의론, 재주와 학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용사의 사용, 산문 수법 활용으로 분류하여 재검토함으로써 以文爲詩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唐詩와 宋詩 그리고 산문과 시라는 배타적 담론에서 벗어나 중국 전통 시사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I. 以文爲詩에 대한 개념 규정의 시도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 중국 詩史에 있어 唐詩는 비단 ‘唐代에 지어진 시’라는 의미를 넘어 중국 시가의 전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시기적으로 바로 다음 세대에 위치한 宋詩는 唐詩의 비교 대상이었고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唐·宋詩 논쟁에서 宋詩는 열세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宋詩의 가장 큰 특징은 철리적 사변성과 생활성, 서술적 산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⁴³⁾ 관련하여 요시카와 고지로는 “서정적인 唐詩는 風의 자식에 가까우며, 사회비판적인 宋詩는 雅의 자식에 가깝다.”⁴⁴⁾고 말한 바 있다. 즉, 唐代는 서정시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宋代는 의론시 중심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요시카와 고지로는 宋詩의 변화를 서술적인 특징에 착안하여 분석하였다.

송대 문학의 분류로서 거대한 양을 보여주는 송시는 몇 가지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다. 그때까지 이미 1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중국의 시가 많이 보이지 않았던 성질로서 전대인 당시와는 왕왕 대조적인 느낌마저 준다. 한마디로 개괄하여 말한다면 시를 단순히 서정과 감정이 표출하는 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정과 함께 理智를 표출하는 장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우선 아주 서술적인 시가 있다. 지성을 자랑하는 시이다. 이전의 문학에서 산문으로 서술했을 내용, 제제가 자주 시로 옮겨진다. 과거의 중국 비평가들이 말하는 이른바 “문으로서 시를 쓴다.(以文爲詩)”가 그것이다.⁴⁵⁾

그는 唐詩와는 구분되는 宋詩의 특징을 감정과 함께 理智를 표출하는 장이라고 여겼다고 말하며, 宋詩의 서술성을 강조한다. 또한, 서술하고자 하는 욕구는 종종 윤리를 수반하며,⁴⁶⁾ 산문으로 서술했을 내용과 제제가 시로 옮겨졌으며 그것이 곧 以文爲詩라고 정의하였다. 宋代 眞德秀는 敍事を 議論과 함께 산문의 문체로 분류하였는데,⁴⁷⁾ 宋詩를 대변하는 평어인 以文爲詩는 서사를 행하고 의론

43) 오태석, <장르사적 관점에서 본 소식의 문예이론과 시.>, 《中語中文學》 제21집, 1997, p.475.

44) 요시카와 고지로, 호승희 역, 《송시개설》, 東文選, 2007, p.58.

45) 요시카와 고지로, 호승희 역, 《송시개설》, 東文選, 2007, p.16.

46) 요시카와 고지로, 호승희 역, 《송시개설》, 東文選, 2007, p.81.

을 담은 시이기에 宋詩는 산문화된 시라 평가받기도 한다.

1. 敍事와 以義論爲詩

宋詩의 특징으로 언급되는 서사와 의론은 산문의 문체로 분류되기도 하며 以文爲詩의 특징으로 분석한다. 그로 인해 以文爲詩의 시작이라 불리는 韓愈의 시는 문인의 시라는 비평을 받기도 한다.⁴⁸⁾ 다음은 이에 대한 趙翼의 의견이다.

以文爲詩는 韓愈에 의해 시작되었고 蘇軾에 이르러 더욱 그 문사가 많아져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 한 시대의 큰 볼거리가 되었다.

以文爲詩,自昌黎始,至東坡益大放厥詞,別開生面,成一代之大觀.⁴⁹⁾

以文爲詩는 陳師道の 《後山詩話》에서 韓愈의 시에 대한 평어로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⁵⁰⁾ 趙翼도 《甌北詩話》에서 그 시작은 韓愈라고 말하는데, 이에 요시카와 고지로가 규정하는 以文爲詩인 서술하는 시, 그리고 程千帆이 정의하는 의론의 수법으로 지은 시⁵¹⁾의 양상은 韓愈의 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47) 김지영, 〈中國 古典詩歌의 散文의 要素 受容 樣相-中唐에서 北宋까지의 以文爲詩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32.

“眞德秀는 《文章正宗》에서 문체를 사령, 의론, 서사, 시가로 나누었다. 시가를 제외한 3개의 문체는 시와 대비되는 문체로 산문의 문체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48) 劉辰翁, 《須溪集》卷六：“문인은 시를 겸할수 있지만 시인은 문을 겸하지 못한다. 두보는 비록 시인이지만 산문체의 어투가 보인다. 오직 한유와 소식만은 그 시가 변화무쌍하여 천둥 번개와 황하 한수처럼 놀랄만 하고 통쾌하여 더 이상 여한이 없으니 이는 대체로 문인의 시이기 때문이다.(文人兼詩, 詩不兼文也, 杜雖詩翁散語可見, 惟韓蘇傾竭變化, 如雷, 震, 河, 漢, 可驚可快, 必無復可憾者, 蓋以其文人之詩也.)” 程千帆, 《歷代進士行卷與文學, 古詩考察》, 武漢大學出版社, 2009, p.185에서 재인용

49) 趙翼, 《甌北詩話》, 卷五; 郭紹虞 編選, 富壽蓀 校點, 《清詩話續編》, 木鈴出版社, 民國72年, p.1195.

50) 何文煥, 《歷代詩話》, 中華書局, 1983, p.309.

51) 요시카와 고지로, 호승희 역, 《송시개설》, 東文選, 2007, p.16.

“우선 아주 서술적인 시가 있다. 지성을 자랑하는 시이다. 이전의 문학에서 산문으로 서술했을 내용, 제재가 자주 시로 옮겨진다. 과거의 중국 비평가들이 말하는 이른바 ‘문으로서 시를 쓴다. (以文爲詩)’ 그것이다.”

程千帆, 《歷代進士行卷與文學, 古詩考察》, 武漢大學出版社, 2009, p.184.

“以文爲詩와 관련된 범위를 제한적 예술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괄하면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방면이다. 한 방면은 고문의 장법과 구법으로 시를 쓴 것이고, 또 다른 방면은 고문에 주로 보이는 의론 수법으로 지은 시이다.”

- 1 果州南充縣, 과주 남충현의
- 2 寒女謝自然. 가난한 여인 사자연.
- 3 童駿無所識, 어려서 무지한 터라 아는 것이 없어서
- 4 但聞有神仙. 신선이 있다는 말만 듣고는,
- 5 輕生學其術, 삶을 가벼이 여기고 그 술수를 배우려
- 6 乃在金泉山. 이에 금천산에 거처하면서,
- 7 繁華榮慕絕. 부귀영화를 부러워하는 마음도 끊고
- 8 父母慈愛捐. 부모의 사랑도 버렸다네.
- 9 凝心感魑魅, 마음을 집중하여 귀신에 감응하니
- 10 恍惚難具言. 그 아득한 경지는 이루 말하기 어려웠는데,
- 11 一朝坐空室, 어느 날 아침 빈 방에 앉았을 때
- 12 云霧生其間. 구름과 안개가 그 속에서 생겨나더니,
- 13 如聆笙竽韻. 마치 생과 우의 소리가
- 14 來自冥冥天. 아득한 하늘에서 내려와 들리는 듯,
- 15 白日變幽晦, 흰 해가 어둡게 변하고
- 16 蕭蕭風景寒. 쓸쓸하니 풍경이 차가워지고는,
- 17 檐楹暫明滅, 처마와 기둥은 홀연 나타났다 사라지고
- 18 五色光屬聯. 오색의 빛이 이어지니,
- 19 觀者徒傾駭, 보는 자는 그저 놀랄 뿐
- 20 躑躅詎敢前. 주춤거리며 어찌 감히 앞으로 나섰으리오.
- 21 須臾自輕舉, 순식간에 스스로 몸을 가벼이 날려
- 22 飄若風中煙. 바람 속 연기처럼 날아가니,
- 23 茫茫入紘大, 아득한 팔방 천지에
- 24 影響無由緣. 그림자와 소리를 찾을 수 없었다네.
- 25 里胥上其事, 마을의 관리가 이 일을 위에 아뢰니
- 26 郡守驚且嘆. 군수가 놀라고 찬탄하고는,
- 27 驅車領官吏, 아득한 팔방 천지에
- 28 氓俗爭相先. 그림자와 소리를 찾을 수 없었다네.
- 29 入門無所見, 문에 들어서니 보이는 것은 없고
- 30 冠履同蛻蟬. 관과 신발이 매미 허물 벗어놓은 것과 같았는데,
- 31 皆云神仙事, 모두 말하기를 신선의 일로
- 32 灼灼信可傳. 그 자취가 명백하여 실로 전할 만하다고 하였네.
- 33 余聞古夏后, 내가 듣기에, 옛날 하후씨는
- 34 象物知神奸. 사물을 본 떠 만들어 귀신을 알게 하여,
- 35 山林民可入, 산림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 36 魑魍莫逢旃. 도깨비도 만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네.
- 37 逶迤不復振, 하지만 흘러가는 세월 속에 다시 진작되지 않았으니
- 38 后世恣欺謾. 후세에 속임과 거짓이 넘쳐나서,

- 39 幽明紛雜亂, 삶과 죽음의 세계가 어지러이 섞이고
 40 人鬼更相殘. 사람과 귀신이 또 서로 해쳤네.
 41 秦皇雖篤好, 진시황이 비록 독실하게 좋아하였다지만
 42 漢武洪其源. 한 무제가 그 근원을 넓혔는데,
 43 自從二主來, 이 두 황제 이후로
 44 此禍竟連連. 이 화가 결국 이어졌네,
 45 木石生怪變, 나무와 돌이 괴이한 변고를 생기게 하고
 46 狐狸騁妖患. 여우와 삶이 요사스런 화를 자행하여,
 47 莫能盡性命, 누구도 생명을 다할 수 없었으니
 48 安得更長延. 어찌 다시 연장할 수 있었으리오,
 49 人生處萬類, 인간은 만물 가운데서
 50 知識最爲賢. 지식이 있어 가장 현명한데도,
 51 奈何不自信, 어찌하여 자신을 믿지 않고
 52 反欲從物遷. 도리어 외물에 따라 옮겨가고자 하는가?
 53 往者不可悔, 이미 지나간 일은 후회해도 안 되니
 54 孤魂抱深冤. 외로운 영혼이 심히 원통해할 터,
 55 來者猶可誠, 앞날은 그래도 경계할 수 있으니
 56 余言豈空文. 내 말이 어찌 헛된 것이겠는가?
 57 人生有常理, 사람의 삶에는 정상적인 도리가 있고
 58 男女各有倫. 남녀에는 각기 정해진 본분이 있으며,
 59 寒衣及譏食, 추우면 옷을 입고 배고프면 먹는 것은
 60 在紡績耕耘. 베를 짜고 땅을 가는 것에 달렸네.
 61 下以保子孫, 아래로는 자손을 보호하고
 62 上以奉君親. 위로는 임금과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법.
 63 苟異於此道, 만일 이 도리에서 어긋나면
 64 皆爲棄其身. 모두 그 몸을 버리게 되네.
 65 噫乎彼寒女, 안타깝구나, 저 가난한 여인이
 66 永托異物群. 오래도록 괴이한 사물의 무리에 기탁하였기에,
 67 感傷遂成詩, 애달픈 심사에 마침내 이 시를 지었으니
 68 昧者宜書紳. 몽매한 자들은 마땅히 큰 띠에 써놓을지어다.⁵²⁾

위 시는 韓愈의 〈謝自然詩 사자연⁵³⁾〉이다. 이 시는 여도사 謝自然에 대한

52) 해당 작품의 번역은 이영주, 임도현 역해의 《완역 한유시전집(上)》(도서출판역락, 2019. pp47-50)을 따랐다.

53) 謝自然은 당시 여도사의 이름이다. 《太平廣記》 권66에 인용된 《集禪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그녀의 집이 大方山 아래에 있었는데, 산 정상에 노자의 상이 있었다. 그녀가 그 상에 참배를 하고는 내려오지 않자 어머니도 따라 올라가 같이 산 정상에서 살았다. 사자연은 항상 《道德經》과 《黃庭內篇》을 읽었다. 14세 때 헝쌀로 만든 밥을 먹었는데 모두 구더기라고 하고는 곡식을 먹지 않았다. 후에 開元觀에서 絕粒道士 鄭太虛에게 가서 《紫靈寶錄》을 받았

것으로 시의 전반부에서는 사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한 뒤, 그것은 사실 허황한 것이고 귀신의 작용일 뿐이니 사람은 모름지기 생업에 충실하고 도리에 충실해야 함을 설파한다.⁵⁴⁾ 김지영은 해당 시를 세 단락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제1구에서 32구까지를 첫 번째 단락으로 사자연이 출가하여 승천하기까지의 일을 상세하게 기록하였고, 두 번째 단락은 제33구에서 제48구까지로, 미신으로 폐해를 본 이전의 일을 서사하였으며, 마지막 단락에서 앞의 고사를 근거로 귀신에 미혹되지 말고 인간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는 의론을 전개하였다고 분석하였다.⁵⁵⁾

- 1 神仙有無何渺茫, 신선이 있는지 없는지는 너무나 아득하여 알 수 없고
- 2 桃源之說誠荒唐. 도원의 이야기는 진실로 황당무계하지.
- 3 流水盤回山百轉, 흐르는 물이 굽이지고 산이 백 번 변하는 모습이
- 4 生綃數幅垂中堂. 비단 여러 폭에 그려져 당 가운데 걸렸네.
- 5 武陵太守好事者, 무릉의 태수는 호사가라
- 6 題封遠寄南宮下. 글을 써서 봉함하여 남궁으로 멀리 부쳤는데,
- 7 南宮先生忻得之, 남궁의 한 선생이 그것을 얻고는 기뻐하여
- 8 波濤入筆驅文辭. 파도 같은 글을 써서 문사를 치달렸으니,
- 9 文工畫妙各臻極, 문장이 훌륭하고 그림이 기묘하여 각기 최고에 이르러
- 10 異境恍惚移於斯. 기이한 경역이 황홀하게 이곳에 옮겨졌네,
- 11 架岩鑿谷開宮室, 바위에 얹고 골짜기를 파서 집을 짓고
- 12 接屋連牆千萬日. 지붕을 연결하고 담장을 연결한 지 천만 일,
- 13 羸顛劉蹶了不聞, 영씨 나라와 유씨 나라가 망해도 전혀 듣지 못했고
- 14 地坼天分非所恤. 땅이 쪼개지고 하늘이 나뉘어도 걱정할 바가 아니었지.

다. 정원 9년 과주자사 李堅이 金泉山에 거처를 만들고는 옮겨와 살게 하였다. 호랑이 두 마리가 출입할 때 반드시 따라다녔는데 다른 사람이 오면 형체를 감추어 보이지 않았다. 매번 다닐 때 여러 신령이 보위하였으며 스스로 動極眞人の 임무를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자연이 곡식을 끊은 지 13년이 지나자 밤낮으로 항상 깨어 있었으며 신통력이 생겨 하루에 수백 리 혹은 수천 리를 다녔다. 명주숨을 입지 않았으며 추위도 불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더위도 부채질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길흉화복을 물으면 모르는 것이 없었다. 정원10년 11월 9일 이견과 작별하고는 사흘 후 금천도장에서 하늘로 날아 올라가니 남녀 수천 명이 우러러 보았으며, 여러 사람들이 “지극한 도를 부지런히 수련하라.”는 말을 들었다. 잠시 후 오색구름이 온통 깔렸으며 하늘의 음악이 가득하였다. 그가 입었던 옷과 관 등의 물품이 방안 상에 예전처럼 남아 있었다. 자사 이견이 표를 올려 알렸으며 그녀를 표창하는 조서가 내려졌다. 《新唐書·藝文志》에 따르면 이견의 《動極真人》 한 권이 있다고 한다. 이영주, 임도현 역해, 《완역 한유시전집(上)》, 도서출판역락, 2019, p.50.

54) 이영주, 임도현 역해, 《완역 한유시전집(上)》, 도서출판역락, 2019, p.50.

55) 김지영, 〈中國 古典詩歌의 散文的 要素 受容 樣相-中唐에서 北宋까지의 以文爲詩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p.43-44.

- 15 種桃處處惟開花, 복숭아를 심어 곳곳에 온통 꽃이 피어
 16 川原近遠蒸紅霞. 멀고 가까운 내와 들에 붉은 노을이 불타올랐는데,
 17 初來猶自念鄉邑, 처음 왔을 때는 그래도 고향을 생각했지만
 18 歲久此地還成家. 세월이 오래 되자 이곳이 다시금 고향이 되었지.
 19 漁舟之子來何所, “어부는 어디서 왔는가?”
 20 物色相猜更問語. 행색을 의심스러워하여 또 물어보니,
 21 大蛇中斷喪前王, “큰 뱀이 가운데가 잘리자 이전 왕조는 망했고
 22 群馬南渡開新主. 여러 말이 남쪽으로 넘어가자 새로운 왕조가 열렸다.”라고 했지
 23 聽終辭絕共淒然, 듣기를 마치고 말이 끝나자 모두 서글퍼하며
 24 自說經今六百年. 스스로 말하기를, “지금 육백 년이 지났는데
 25 當時萬事皆眼見, 당시의 갖가지 일이 모두 눈에 보이건만
 26 不知幾許猶流傳. 세상에 얼마나 아직도 전해지는지 모르겠구나.”라고 했지
 27 爭持酒食來相饋, 술과 반찬을 다투어 가지고 와서 주는데
 28 禮數不同樽俎異. 예절도 같지 않고 그릇도 달랐지.
 29 月明伴宿玉堂空, 달 밝은 밤 빈 옥당에 함께 묵으니
 30 骨冷魂清無夢寐. 뼈는 차갑고 정신은 맑아 잠들지 못했는데,
 31 夜半金雞啁晰鳴, 한밤중에 금계가 어지러이 울어
 32 火輪飛出客心驚. 불빛 수레바퀴가 날아 솟아나니 나그네 마음이 놀랐네.
 33 人間有累不可住, 인간 세상에 얽매인 일이 있기에 머물 수 없어
 34 依然離別難爲情. 아쉬워하며 헤어지자니 마음이 괴로웠고,
 35 船開棹進一回顧, 배를 띄워 노를 젓다가 한번 돌아보니
 36 萬里蒼蒼煙水暮. 만 리 아득히 안개 낀 물에 저녁이었지.
 37 世俗寧知僞與眞, 세속에서 어찌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리오?
 38 至今傳者武陵人. 지금까지 전한 사람은 무릉 사람 뿐인데.⁵⁶⁾

〈桃源圖 도원도〉는 陶淵明의 〈桃花源記 도화원기〉에 나오는 무릉도원을 그린 그림으로 韓愈가 이를 보고 쓴 것이다. 〈桃花源記〉의 내용을 묘사하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⁵⁷⁾

韓愈는 불교, 도교 등 미신을 배척하였던 인물로 〈謝自然詩〉에서 사자연이 하늘로 승천하여 신선이 되었다는 고사를 서술하고, 〈桃源圖〉에서는 〈桃花源記〉의 내용을 서술한다. 그리고 謝自然과 桃花源과 같은 내용은 허구임을 말하며 자신의 의론을 표출하였다. 일찍이 清代 顧嗣立은 〈謝自然詩〉를 “전부 의론으로 시를 지어, 문사가 엄정하고 뜻이 바르며, 눈을 뜨게 하고 담을 키우게 하

56) 해당 작품의 번역은 이영주, 임도현 역해의 《완역 한유시전집(下)》(도서출판역락, 2019, p.62)를 따랐다.

57) 이영주, 임도현 역해, 《완역 한유시전집(下)》, 도서출판역락, 2019, p.62.

니 〈原道〉와 〈佛骨表〉에 버금간다.”⁵⁸⁾라고 하였고 翁方綱은 〈桃源圖〉를 평하며 “바로 〈原道〉의 대의론과 같아 경치를 서술하면서 이를 드러낸 것이다.”⁵⁹⁾라고 평가하였다. 두 작품에 대한 평가 모두 의론 그리고 이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韓愈의 문장 〈原道〉와 견주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서사와 의론은 唐보다 앞선 시기의 시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서정을 위주로 하던 唐詩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격은 아니었고, 후대에는 서사와 의론을 산문의 문체로 분류하는 양상을 살필 수 있기에, 두 시는 모두 고문인 〈原道〉와 비견되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議論詩는 以議論爲詩라 일컬어지며 以文爲詩의 대표적 양상으로 분석된다.

의론뿐만 아니라 서사성 역시 以文爲詩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요소로 언급되는데, 아래의 작품을 살펴보도록 한다. 상기 언급한 시 외에도 서사로 시를 전개하는 韓愈의 다른 시들을 살펴볼 수 있다.

〈八月十五夜贈張功曹 팔월 십오일 밤에 장 공조에게 주다〉

...

- 5 君歌聲酸辭且苦, 그대 노래 소리는 슬프고 내용 또한 고달파,
- 6 不能聽終淚如雨. 눈물이 비같이 흘러 끝까지 들을 수가 없구나.
- 7 洞庭連天九疑高, 동정호는 하늘과 닿았고 구의산은 높은데,
- 8 蛟龍出沒猩鼯號. 교룡이 출몰하고 성성이와 날다람쥐가 울부짖었지.
- 9 十生九死到官所, 구사일생으로 관사에 이르렀지만
- 10 幽居默默如藏逃. 깊숙한 곳에서 묵묵히 지내니 도망쳐 숨은 것과 같았고,
- 11 下床畏蛇食畏藥, 상에서 내여올 땀 뱀이 두렵고 밥 먹을 땀 독이 두려웠으며
- 12 海氣濕蟄熏腥臊. 축축한 바다 기운에는 비린내가 스며들었지.
- 13 昨者州前捶大鼓, 일전에 주 관청 앞에서 큰 북을 쳤으니
- 14 嗣皇繼聖登夔臯. 새 황제께서 대를 이어 계승하고 기와 고요를 등용하셨다네.
- 15 赦書一日行萬里, 사면장이 하루에 만 리를 달려
- 16 罪從大辟皆除死. 사형의 죄를 지은 자도 모두 죽음을 면하게 되었네.
- 17 遷者迫回流者還, 폄적된 이도 돌아가게 되고 유배 간 이도 돌아갔으니》《
- 18 滌瑕蕩垢清朝班. 흠과 때를 닦고는 조정의 반열을 깨끗이 하겠지만,
- 19 州家申名使家抑, 자사는 이름을 알렸으나 관찰사는 억눌렀으니

58) 錢仲聯, 《韓昌黎詩繫年集釋》, 上海古籍出版社, 1984, p.34.

顧嗣立:“全以議論作詩, 辭嚴義正, 明目張膽, 〈原道〉, 〈佛骨表〉之亞也.

59) 翁方綱:“即仍《原道》大議論, 而于絳景出之.”; 程千帆, 《歷代進士行卷與文學, 古詩考察》, 武漢大學出版社, 2009. p.188에서 재인용.

- 20 坎軻只得移荊蠻. 실의하여 우리는 다만 형주로 옮겨가게 됐을 뿐이지.
 21 判司卑官不堪說, 관사는 낮은 관직이라 감히 말을 못하고
 22 未免捶楚塵埃間. 먼지 가운데서 매질 당함을 면치 못할 신세이니,
 23 同時輩流多上道, 같은 때에 우리 무리가 대부분 길에 오를 터인데
 24 天路幽險難追攀. 하늘 길은 깊고 험하여 따라 오르기 힘들구나⁶⁰⁾
 ...

〈山石 산의 바위〉

- 1 山石犖确行徑微, 산의 바위는 높고 험난하며 길은 좁아,
 2 黃昏到寺蝙蝠飛. 황혼 무렵 절에 닿았더니 박쥐가 날았다.
 3 升堂坐階新雨足, 당에 오르며 섬돌에 앉았더니 새로 비가 흐죽하게 내려
 4 芭蕉葉大支子肥. 파초의 잎은 크고 치자는 살져 있었다.
 5 僧言古壁佛畫好, 오래된 벽의 불화가 좋다고 스님이 말하기에
 6 以火來照所見稀. 불을 들고 비춰보니 희미하게 보였다.
 7 鋪床拂席置羹飯, 평상 펴고 자리 털고는 국과 밥을 놓았는데
 8 蔬糲亦足飽我飢. 거친 밥이라도 내 허기를 채우기에는 충분하였다.
 9 夜深靜臥百蟲絕, 밤이 깊어 조용히 누우니 온갖 벌레 소리 멎었고
 10 淸月出岵光入扉. 맑은 달이 고개위로 나와 빛이 문으로 들어왔다.
 11 天明獨去無道路, 날이 밝아 홀로 가는데 길이 없어
 12 出入高下窮煙霏. 들락날락 오르락내리락하며 안개 속을 다 다녔다.
 13 山紅澗碧紛爛漫, 산은 붉고 냇물은 푸르러 분분히 찬란하며
 14 時見松櫪皆十圍. 때때로 보이는 소나무와 상수리나무는 모두 열 아름이었다.
 15 當流赤足蹋澗石, 냇물을 만나 맨발로 개울 속 돌을 밟아보니
 16 水聲激激風吹衣. 물소리 쿵쿵 나고 바람이 옷에 불었다.
 17 人生如此自可樂, 인생이 이와 같으면 절로 즐거울 것인데
 18 豈必局束爲人鞿. 어찌 궁박하게 다른 사람에게 매여 살아야하겠는가?
 19 嗟哉吾黨二三子, 아아, 우리 무리 두세 사람은
 20 安得至老不更歸. 어찌하면 늙도록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⁶¹⁾

위의 시 두 수는 韓愈의 시 〈八月十五夜贈張功曹〉의 일부분과 〈山石〉이다.
 〈八月十五夜贈張功曹〉의 인용한 부분은 張署가 유배지에서 고생하며 고작 지방관으로 옮겨 온 과정 동안 고초를 겪은 일을 서술하였다. 〈山石〉은 산사에

60) 작품의 번역은 이영주, 임도현 역해의 《완역 한유시전집(上)》(도서출판역락, 2019. pp.297-299)을 따랐다.

61) 작품의 번역은 이영주, 임도현 역해의 《완역 한유시전집(上)》(도서출판역락, 2019, pp.173-175)을 따랐다.

도착하기까지의 과정부터 산사에서 스님과 벽화를 감상하기도 하며 공양을 드린 일과 산사의 저녁 풍경 그리고 이튿날 날이 밝자 산을 유람한 내용을 서술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한 유기체 시이다. 위 시들에 대하여 以文爲詩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清代 方東樹는 〈八月十五夜贈張功曹〉에 대해 “한편의 고문장법이다.”라고 평하고,⁶²⁾ 〈山石〉은 “서사가 간략하고 빼어나 고문 수필 같다.”고 평하였다.⁶³⁾ 이러한 서사는 시를 마치 고문 수필, 하나의 문장을 읽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평가이며 이러한 특징은 以文爲詩의 내용으로 분석한다.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논의들은 以文爲詩의 ‘文’을 지금의 장르적 개념인 산문으로 규정하고 韓愈의 작품에서 그 특징을 탐색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⁶⁴⁾ 물론 (사경)-(술회)의 구도를 보이는 대부분의 작품과 달리 韓愈의 시는 (서사)-(의론)의 구조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서사와 의론은 韓愈 이전의 唐代 문인들의 시와 唐 이전의 고시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⁶⁵⁾ 唐代 律詩에서도 이와 같은 서술성이 짙은 시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唐代 율시의 격률이 완비되며 이러한 서사시는 근체시의 주된 작시 경향에서 멀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점차 서사와 의론을 산문의 체제로 분류하고 唐代에 이르러 시와 문을 상대적 개념으로 인식⁶⁶⁾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근체시의 글자 수의 제한 및 대장의 활용 등 근체시의 엄정한 율격은 서사 혹은 의론을 전개하는 데 적합하지 못하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唐詩에서도 서사하고 의론을 전개하는 시의 양상을 종종 볼 수 있는데, 특히 杜甫와 韓愈의 시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杜甫 〈春夜喜雨 봄밤의 좋은 비〉

好雨知時節, 좋은 비가 시절을 알아

62) 程千帆, 《歷代進士行卷與文學, 古詩考察》, 武漢大學出版社, 2009, p.186에서 재인용

63) 程千帆, 《歷代進士行卷與文學, 古詩考察》, 武漢大學出版社, 2009, p.186에서 재인용

64) 김지영, 〈中國 古典詩歌의 散文的 要素 受容 樣相-中唐에서 北宋까지의 以文爲詩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20.

65) 관련 내용은 본고의 2쪽 각주 4)와 7쪽 각주 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66) 김지영, 〈中國 古典詩歌의 散文的 要素 受容 樣相-中唐에서 北宋까지의 以文爲詩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38.

當春乃發生. 봄이 되자 곧 만물을 발생시키네.
 隨風潛入夜, 바람 따라 몰래 밤에 들어와
 潤物細無聲. 만물을 적시되 가늘어 소리가 없네.
 野徑雲俱黑, 들길에서는 구름이 함께 어둡고
 江船火獨明. 강 위 배에선 불빛이 홀로 밝네.
 曉看紅濕處, 새벽에 붉게 젖은 곳을 보면
 花重錦官城. 꽃들이 금관성에 무겁겠지.

韓愈 <左遷至藍關示侄孫湘 좌천되어 남관에 이르러 종손 한상에게 보여준다.>

一封朝奏九重天, 한 통의 간서를 아침에 황제께 아뢰었다가,
 夕貶潮州路八千. 저녁에 관천리 길 조주로 폄적되었다.
 欲爲聖明除弊事, 성명하신 임금님을 위하여 폐단을 없애려 하였을 뿐,
 肯將衰朽惜殘年. 어찌 노쇠한 몸으로 남은 세월을 아끼리요
 雲橫秦嶺家何在, 구름이 진령에 걸려있는데 내 집은 어디인가
 雪擁藍關馬不前. 눈이 남관에 가득하여 말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네.
 知汝遠來應有意, 네가 멀리 전송 온 것은 응당 뜻이 있음을 알겠으니
 好收吾骨瘴江邊. 내 뼈를 장기서린 강가에서 잘 거두어 주거라.

杜甫 시의 함련은 비 내리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으며, 韓愈의 시에서도 함련의 두 구가 하나의 문장이 되어 자신이 왜 황제에게 간하는 글을 올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며 자신의 입장과 의론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인용된 두 시 모두 流水對를 활용하여 두 구를 하나의 산문구(67)로 연결 지어 서사 혹은 의론을 서술하고 있는데, 앞선 韓愈의 작품 함련에 대해 吳北江은 “큰 기운이 두루 미치니 문장의 법으로 지은 것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68) 그는 韓愈의 流水對 활용을 以文爲詩의 일례로 분석한 것이다.

이외에 杜甫의 시에서 尾聯을 제외하고 모두 流水對를 활용하여 이야기를 서술하듯 쓴 시 또한 있다.(69) 杜甫와 韓愈는 대구를 이루어야 한다는 율격의 구

67) 송용준, 오태석, 이치수, 《宋詩史》, 역락, 2004, p.433.

송용준, 오태석, 이치수는 黃庭堅의 〈寄黃幾復〉를 평하며 수련에 대해 “유수대의 산문구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처럼 유수대는 시구를 산문화하는 효과를 보인다.

68) 〈左遷藍關示侄孫湘〉의 頷聯: ‘欲爲聖朝除弊事, 肯將衰朽惜殘年’云: “大氣盤旋, 以文章之法 行之.”; 程千帆, 《歷代進士行卷與文學, 古詩考察》, 武漢大學出版社, 2009. p.184.

69) 강민호는 이외에도 유수대를 활용한 杜甫의 작품으로 〈宗武生日 종무의 생일〉을 들고 있리다. 강민호, 〈流水對의 美學 研究〉, 《中國文學》 第76集, 2013, pp.55-56.

속에서도 때로는 시상의 흐름을 위하여, 서사 혹은 의론을 전개하기 위하여 流水對를 사용하며 서술하는 시를 지었다. 결국 流水對는 시 속에서 서사성과 의론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곧 宋詩를 이끌었던 杜甫와 韓愈의 작품에서 주로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唐代 율격이 완성된 근체시는 대장의 활용을 원칙으로 삼아왔다. 對仗은 엄정한 대칭미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시상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정제된 對仗은 안정감을 줌과 동시에 정제되고 판에 박힌 느낌을 줄 수 있으며, 對仗의 반복성은 절주미를 형성하지만 적절치 않게 사용하면 시어가 낭비되며 기세를 상실할 수 있다.⁷⁰⁾ 이러한 對仗의 병폐는 배율에서 두드러지며 이에 관한 문제의식은 일찍이 존재하고 있었다. 관련하여 劉勰은 《文心雕龍·麗詞》에서 “단구와 대우를 번갈아 운용하기를 마치 각종 패옥을 조절하듯 해야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⁷¹⁾ 이에 문인들은 이러한 대장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단구와 같은 효과를 가지며 두 개의 구가 하나의 구처럼 이어지는 流水對를 활용하였다. 流水對는 唐代에서도 사용하던 대장법이지만 수사기교로써 인식하고 개념화하기 시작한 것은 宋代 이후이다. 강민호의 설명에 따르면 葛立方의 《韻語陽秋》에 “十字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嚴羽의 《滄浪詩話》에서 “十字對”, “十四字對”라는 말이 등장하였으며 이후 明代에 이르러 胡震亨의 《唐音癸簽》에서 “兩句只一意”라는 설명과 함께 流水對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다.⁷²⁾ 流水對는 그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부터 對仗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단조로움을 막고 시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자아내기 위해 이미 사용하던 수단이었던 것이다. 流水對의 활용이 곧 서사성의 확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流水對는 엄정한 율격 안에서 자신의 견해나 의론을 전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로 인해 韓愈의 流水對 활용을 以文爲詩의 경향으로 분석한 학자도 존재한다.⁷³⁾ 물론 韓愈의 고시와 율시 모두 서술성과 의론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唐 이전 그리고 唐代의 다른 문인들의 작품에서도 이

70) 강민호, 〈流水對의 美學 研究〉, 《中國文學》 第76集, 2013, p.46.

71) 劉勰, 《文心雕龍·麗詞》: “迭用奇偶, 節以雜佩, 乃其貴耳.”; 劉勰 著, 詹鍔 義證, 《文心雕龍義證》, 上海古籍出版社, 1989. p.1324.

72) 강민호, 〈流水對의 美學 研究〉, 《中國文學》 第76集, 2013, p.47.

73) 程千帆, 《歷代進士行卷與文學, 古詩考察》, 武漢大學出版社, 2009, p.184.

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술성과 의론성으로 규정되는 以文爲詩의 양상은 韓愈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以文爲詩의 개념을 규정하는 하나의 큰 갈래로는 그 서술성과 의론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요시카와 고지로는 宋代 이와 같은 시풍을 연 歐陽修와 唐代 문인들은 산문의 수양에도 힘을 쏟았으며, 이러한 수양이 작시에도 이입된 것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종래의 시가 자주 함몰되던 공허한 추상에 대한 반발이 하나의 이유라고 말하며 시선을 밖으로 돌려 다양한 소재를 상세히 서술하고 이와 같은 서술의 욕구는 종종 윤리를 수반하게 되어 宋代 시풍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한다.⁷⁴⁾

정리하자면, 위에서 살펴본 以文爲詩에 대한 논의는 韓愈 시의 서술성과 의론을 그 특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 서사하고자 하는 양상은 韓愈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고시뿐만이 아니라 엄정한 율격을 추구했던 근체시 특히 율시에서도 서술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翁方綱은 杜甫와 韓愈가 시에서 理의 의미를 강조하였다고 평가하는데,⁷⁵⁾ 시에서 의론을 다루는 양상도 杜甫의 시에서 이미 그 양상을 살필 수 있다.

2. 以文字爲詩, 以才學爲詩, 用事의 대응

張健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宋人は 作文을 作文字라 하였으니, 以文字爲詩는 곧 以文爲詩를 가리킨다고 한다.⁷⁶⁾ 하지만 周子翼은 확실히 송대 作文을 作文字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시어나 시구 등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며 반박하며, 엄우가 비판한 以文字爲詩는 以文爲詩가 아닌 강서시파의 시구 운용을 뜻한다고 주장한다.⁷⁷⁾ 즉, 진사도의 《後山詩話》에 언급된 以文爲詩와 엄우의 《滄浪詩話》에서 비판한 以文字爲詩는 다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74) 요시카와 고지로, 호승희 역, 《송시개설》, 東文選, 2007, p.81.

75) 진가람, 〈翁方綱의 詩學觀 小考 - 두보(杜甫)와 한유(韓愈)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건지인문학》 제31집, 2021.06, p.118.

76) 張健, 《滄浪詩話校箋》, 上海古籍出版社, 2012, p.147.

“以文字爲詩: 卽以文爲詩. 宋人稱作文爲作文字.”

77) 周子翼, 〈“以文爲詩”解讀悖誤析論〉, 《江西社會科學》 2022年第8期, 2022.08. p.91.

고 현재 진행된 논의 대다수는 황정견을 以文爲詩의 작시를 한 대표적인 문인으로 분석하며, 엄우를 以文爲詩에 대하여 비판한 대표적인 송대의 문인으로 언급한다.

이미 살펴본바 黃庭堅과 陳師道는 시와 문은 각기 다른 체가 있으며 시와 산문의 체가 혼용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모습을 보인다.⁷⁸⁾ 하지만 黃庭堅과 陳師道가 시가 작품에 산문체가 침범하는 것을 경계하였음에도 以文爲詩를 실현한 문인으로 분류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⁷⁹⁾ 黃庭堅의 시를 以文爲詩로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用事⁸⁰⁾인데 黃庭堅은 그것을 강조했던 인물이다. 黃庭堅을 중심으로 한 江西詩派는 용사의 사용은 곧 시의 내용적 풍성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였던바, 아래의 인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杜甫가 시를 짓거나 韓愈가 문장을 지을 때, 한 글자도 유래가 없는 말은 없었다. 후인들이 독서가 부족하여 韓愈와 杜甫가 스스로 구절을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 고래로 글을 잘 짓는 사람은 정말 만물을 도야하는 데 만능하였다. 비록 고인의 진부한 말을 취하여서 자기의 작품에 집어넣더라도, 마치 한 알의 영단을 써서 쇠를 녹여 황금을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이 한다.

老杜作詩，退之作文，無一字無來處。蓋後人讀書少，故謂韓杜自作此語耳。古之能爲文章者，眞能陶冶萬物。雖取古人之陳言，入於翰墨，如靈丹一粒點鐵成金也。⁸¹⁾

윗 글은 江西詩派의 宗主였던 黃庭堅의 언급으로 江西詩派의 주된 시론인 點化論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용사는 江西詩派가 강조하는 점화의 주된 방법 중 하나인데, 이러한 용사의 사용은 곧 以文爲詩의 대표적 특징으로 설명되어지곤 한다.

78) 관련 내용은 본고의 5쪽 각주 13), 14)를 참고할 것.

79) 馬茂軍, <“以文爲詩”話題與中國古典詩學的展開>, 《華南師範大學學報》 2021年第5輯. p.179.

80) 김지영, <中國 古典詩歌의 散文의 要素 受容 樣相-中唐에서 北宋까지의 以文爲詩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204.

김지영은 강서시파의 작법특징으로 분석되는 내용 중 用事, 好奇, 尙硬은 그 근원이 韓愈이며 以文爲詩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며 황정견의 시에서 以文爲詩한 작시형태를 분석한 바 있다.

81) 黃庭堅, <答洪駒父書>; 郭紹虞 主編, 王文生 副主編, 《中國歷代文論選》 第二冊, 上海古籍出版社, 2001, p.316.

(以文爲詩의 고문자법을 설명하며) 經典語를 인용하여 신선감을 불어 넣고 문장 같은 느낌을 들게 했다는 것이다. 韓愈 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古體字·怪體字·生僻字 등 詰僻齷牙한 시어들이며, 이는 대부분 先秦兩漢의 典籍들에서 가져온 것으로 韓愈의 413수 시 속에 수없이 많이 찾을 수 있다. 韓愈는 박식한 학문 덕분에 대량의 경전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여, 진부함과 평범함에서 벗어나 색다른 느낌을 주는 새로운 시 세계를 개척하고, 또 고문처럼 고아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여 시가 산문화를 꾀했다.⁸²⁾

당시와는 다른 방향으로 시 창작을 시도했던 以文爲詩한 작가들은, 시에서 쓰지 않는 시어를 시 속에 씌므로 시가 언어를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였다. 以文爲詩한 작가들은 시인들이 시의 語境 밖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여, 이전에 시에 쓰지 않았던 전인들이 이미 했던 말들을 시 속에 표현하였다. 그것은 바로 유가경전의 단어를 사용한 것이었다. 이것은 이른바 이고위신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비록 전인들의 진부한 말을 사용하는 것일지라도, 비시화된 성어를 시 속에 사용하여 시가 언어의 신선감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양만리는 《誠齋詩話》에서 “시구에서는 경어를 사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잘 사용하면 그 운치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는데, 바로 시가 언어라 할 수 없는 경전어의 사용이 시의 생명력을 불어 넣을 수도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이러한 경전어는 학술영역에서 주로 대하는 언어로서, 일반적으로는 산문의 형태로 된 글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 속에 경전어를 잘 사용하면 산문의 기골과 힘을 시속에 불어넣게 되어, 시는 정제미를 가진 당시와는 또 다른 새로운 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⁸³⁾

고팔미는 학식에서 비롯된 韓愈의 시는 경전어의 사용으로 인해 마치 문장을 읽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김지영 역시 차별화의 하나였던 경전어의 사용은 산문적인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로, 唐詩 내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차별화 전략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김지영은 시에서 경전어가 활용된 양상을 분석하였다.

82) 고팔미, 〈韓愈의 “以文爲詩”와 그 영향〉, 《中國學》 第38輯, 2011, p.112.

83) 김지영, 〈中國 古典詩歌의 散文的 要素 受容 樣相-中唐에서 北宋까지의 以文爲詩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136.

韓愈 〈符讀書城南 한부가 성 남쪽에서 책을 읽다.〉

木之就規矩, 나무가 그림쇠와 곱자에 맞춰지는 것은
在梓匠輪輿. 목공과 수레 장인에 달려있고,
人之能爲人, 사람이 사람다워 질 수 있는 것은
由腹有詩書. 배에 《시경》과 《서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陶淵明 〈飲酒詩·其九 음주시 제9수〉

檻縷茅簷下, 초가집 처마 밑에 누더기 신세로야
未足爲高栖. 훌륭한 삶이라고는 할 게 못되오
一世皆尙同, 온 세상 모두 어울리길 숭상하니
願君汨其泥. 그대도 그 흙탕물을 휘젓도록 하구려

...

白居易 〈隱幾 책상에 앉드려〉

行年三十九, 살아온 해가 삼십구 년
歲暮日斜時. 세모의 날이 저무는 때
四十心不動, 맹자는 사십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吾今其庶幾. 지금 나는 어떠한가?

인용한 韓愈의 〈符讀書城南〉에서 符는 韓愈의 아들인 한창의 어릴 때 이름이다.⁸⁴⁾ 이 시는 韓愈의 아들에게 부지런히 경전을 공부할 것을 면려하는데, 수련인 “木之就規矩, 在梓匠輪輿.”는 《孟子·盡心 下》의 “가구와 수레바퀴를 만드는 목수가, 남에게 킴퍼스를 줄 수는 있어도, 남을 공교하게 만들 수는 없다.”⁸⁵⁾는 구절을 사용하였다. 도연명 〈飲酒詩·其九〉중 “一世皆相同, 願君汨其泥”는 《楚辭·漁父辭》의 내용을 활용하였으며⁸⁶⁾, 그리고 백거이의 〈隱幾〉의 제13구 “四十心

84) 이영주, 임도현 역해, 《완역 한유시전집(下)》, 도서출판역락, 2019, p.191.

85) 《孟子·盡心 下》: “孟子曰, 梓匠輪輿能與人規矩, 不能使人巧.”; 楊伯峻譯注, 《孟子譯注》, 中華書局, 2008, p.326.

86) 《楚辭·漁父辭》: “漁父曰: 聖人不凝滯於物, 而能與世推移世人皆濁, 何不瀉其泥而揚其波衆人皆醉, 何不舖其糟而歎其醜, 何故深思高舉, 自令放爲.” 傅錫壬註釋, 《新譯楚辭讀本》, 三民書局, 民國

不動”구 또한 《孟子》의 구절을 활용한 것⁸⁷⁾이다. 이러한 경전어의 활용은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요약이며 문장의 주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시인의 논지에 타당성을 부여하기에 시인은 자신의 의견을 자신감 있게 전개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⁸⁸⁾

고팔미와 김지영의 논의를 요약하면 시에서의 경전어 활용은 산문적인 느낌을 주며 시인의 논지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전어의 활용 역시 韓愈의 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以文爲詩의 한 요소로 언급되곤 한다. 또한, 江西詩派는 점화론을 주된 시론으로 삼고 있는바 그들의 작품에서 활용되는 경전어의 활용은 以文爲詩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기도 한다. 이러한 江西詩派의 시풍에 대하여 비판한 宋代 문인들의 언급이 있다.

蘇軾과 黃庭堅은 용사와 압운의 공교함은 극에 이르렀지만, 그 실체를 궁구해보면, 시인의 한 가지 병폐이니, 이것은 후생들로 하여금 단지 용사와 압운이 시가 되는 것으로만 알 뿐 사물을 읊는 것이 공교함이 되고 뜻을 말하는 것이 근본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풍아가 이로부터 사라져 버렸다.

蘇黃用事押韻之工,至矣盡矣,然究其實,乃詩人中一害,使後生只知用事押韻之爲詩,而不知詠物之爲工,言志之爲本也,風雅自此掃地矣”⁸⁹⁾

앞서 언급한 嚴羽의 언급⁹⁰⁾과 張戒의 蘇軾과 黃庭堅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 그들은 채주와 학식으로 지은 시, 곧 경전의 어구나 용사를 사용한 작품은 운율을 갖추어야 할 시에 있어서는 어울리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그들은 의론으로 지은 시, 以義論爲詩 또한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⁹¹⁾, 그들이 비판하

76年, p.141.

87) 《孟子·公孫丑 下》：“孟子曰：我四十不動心。楊伯峻譯注，《孟子譯注》，中華書局，2008，p.61.

88) 김지영, 〈中國 古典詩歌의 散文의 要素 受容 樣相-中唐에서 北宋까지의 以文爲詩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140.

89) 丁仲祐, 《續歷代詩話》, 藝文印書館, 民國乙卯. p.544.

90) 嚴羽, 《滄浪詩話》：“近代諸公,乃作奇特解會,遂以文字爲詩,以才學爲詩,以議論爲詩,夫豈不工?終非古人之詩也.”; 何文煥, 《歷代詩話》, 中華書局, 1983, p.688.

91) 張戒, 《歲寒堂詩話》：“子瞻以議論作詩,魯直又專以補綴奇字,學者未得其所長,而先得其所短.”; 丁仲祐, 《續歷代詩話》, 藝文印書館, 民國乙卯. p.548.

는 내용들은 以文爲詩의 정의와 맞닿아 있어, 엄우는 以文爲詩를 비판하는 宋代의 문인으로 평가를 받는다.⁹²⁾

하지만, 경전어의 활용을 以文爲詩의 요소로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陶淵明의 시가 예로 들어지기도 하며 黃庭堅의 언급처럼 杜甫 또한 시에서 전고를 다용하며 경전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에⁹³⁾ 韓愈 시의 고유한 특징 혹은 以文爲詩로 규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胡應麟이 蘇軾과 黃庭堅이 용사를 좋아하여 되려 사의 부림을 받게 되어 사가 장애가 되었다고 했는데⁹⁴⁾ 嚴羽가 비판한 용사에 대한 비판은 胡應麟과 같은 용사의 남용에 대한 비판으로 以文爲詩에 대한 비판으로 특정하긴 힘들다고 판단된다. 周子翼 또한 用典은 以文爲詩의 審美趣味상의 外在的 表現으로 이러한 表象은 以文爲詩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하며 用典을 以文爲詩로 보아서 안된다고 말한다.⁹⁵⁾ 즉, 현재 以文爲詩의 개념을 규정하는 용사의 활용 또한 韓愈보다 앞선 시기의 문인들의 시가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以文爲詩의 특징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산견되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1절과 2절에서 언급한 일련의 논의를 살펴보면 ‘以文爲詩’의 내용적 특징으로 산문으로 분류되는 서사를 시에서 행한 것, 자신의 의론을 서술한 것, 그리고 경전어를 사용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시 속에 사용된 경전어의 활용을 비롯하여 서사와 의론의 특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왔다. 이와 관련하여 清代 문인 葉燮은 以文爲詩가 비판받았던 요소들은 이전 시기부터 존재해왔으며, 특히나 以文爲詩를 비판했던 이들이 추송했던 杜甫와 李白의 작품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⁹⁶⁾ 그

92) 송용준, 오대석, 이치수, 《宋詩史》, 역락, 2004, p.9.

93) 王斯怡, 李寅生, 〈杜詩引用《詩經》探微〉, 《哈爾濱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第53期, 2019.
王斯怡, 李寅生은 杜甫의 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詩經》의 시구 및 내용을 고찰하며, 그 횟수가 704회에 이른다고 분석한 바 있다.

94) 이병한, 《중국고전시학의 이해》, 문학과 知性社, 1992, p.179.

95) 周子翼, 〈“以文爲詩”本義 考論〉, 《江海學刊》, 2022.06. p.231.

96) 葉燮, 《原詩》外篇: “從來論詩者,大約伸唐而絀宋. 有謂唐人以詩爲詩, 主性情,於三百篇爲近. 宋人以文爲詩, 主議論,於三百篇爲遠. 何言之謬也! 唐人詩有議論者, 杜甫是也. 杜五言古, 議論尤多. 長篇如〈赴奉先縣詠懷〉, 〈北征〉及〈八哀〉等作, 何首無議論? 而以議論歸宋人, 何歟? 彼先不知何者是議論, 何者爲非議論, 而妄分時代邪? 且三百篇中, 二雅爲議論者, 正自不少. 彼先不知三百篇, 安能知後人之詩也! 如言宋人以文爲詩, 則李白樂府長短句, 何嘗非文. 杜甫前, 後出塞及潼關吏等篇,

의 언급과 위에서 이미 분석하였던 내용을 통해 보건대 以文爲詩의 대표적 요소로 분석되는 서사, 의론, 학식과 용사는 결국 韓愈 이전부터 그 활용 양상을 살펴볼 수 있기에 以文爲詩의 의미 범주는 더욱 모호하게 느껴지고, 이러한 특징만으로 以文爲詩의 시작을 韓愈의 시로 규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그들과 宋代 문인들이 생각하던 시와 문의 장르적 경계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 장에서 후술하도록 하겠다.

3. 산문 수법의 활용

역대로 以文爲詩는 서사와 의론 그리고 용사의 다용과 산문수법으로 지은 시라는 특징으로 규정된 바 있는데, 앞서 이러한 以文爲詩가 지니고 있는 내용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특징은 宋詩를 대변하는 以文爲詩의 산문적 요소이며 그 시작이라 불리는 韓愈의 시에서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以文爲詩의 대표적 특징으로 분석되는 서사, 의론과 용사 등은 韓愈뿐만이 아닌 韓愈보다 앞선 시기의 문인들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韓愈가 아닌 陶淵明⁹⁷⁾, 杜甫가 以文爲詩의 시작⁹⁸⁾이라고 말하는 선행연구도 존재하기도 한다. 다만, 내용적 층위에서의 以文爲詩에 대한 접근은 그것이 지닌 특징을 온전히 규명하는 데 분명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에 본 장에서는 以文爲詩의 ‘산문의 수법으로 지은 시’라는 점에 주목하여 韓愈의 시와 以文爲詩가 갖는 고유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시에서의 산문수법의 활용을 以文爲詩의 특징으로 분석한다. 산문수법의 활용 양상으로는 賦體를 활용한 것, 고의적으로 대구를 피하고 산문구로 작시한 것, 감탄사 연사 등 허사를 사용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시에서 활용되지 않는 수법들로 역시 韓愈의 시에서 그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다.

其中豈無似文之句? 爲此言者, 不但未見宋詩, 並未見唐詩. 村學究道聽耳食, 竊一言以詫新奇, 此等之論是也.”; 王夫之撰, 丁福保編, 《清詩話》, 明倫出版社, 民國60年, p.607.

97) 高建新, 〈以文爲詩始爲陶淵明〉, 《內蒙古大學學報》, 2002年4期, pp.42-45.

98) 許總, 〈杜甫以文爲詩論〉, 《杜詩學發微》, 南京出版社, 1989, pp.270-278.

위에서 이미 용사의 활용의 예로 언급한 그의 시 〈符讀書城南〉에서 “乃一龍一豬”와 같이 근체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허사의 사용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러한 산문 자법에 대한 활용 양상은 韓愈의 以文爲詩한 대표적인 작품인 〈南山〉에서도 확인된다.

이 시는 ‘산문투로 시를 짓는다(以文爲詩)’는 한유 시의 특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賦체도 운용하고 있어서 풍격이 독특하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부체를 운용한 후 반부에서 종남산의 모습을 여러 가지 비유로 나열하여 묘사하면서 ‘或’자를 51차례나 중복한 것은 아주 과격적인 기법인데, 이는 《시경·북산》, ‘문부’ 등에 보이는 구법에서 연원한 것으로 추정한다.⁹⁹⁾

위 인용문은 이영주와 임도현의 〈南山〉 시의 해제에서 일부 인용한 것이다. 〈南山〉에서 산문 투의 특성이 보인다는 언급은 장법과 구법에서 산문적 느낌을 주지만 ‘吁嗟’와 같은 허사가 활용되는 모습을 평가한 내용일 것이다. 그리고 그의 언급에서도 볼 수 있듯 〈南山〉은 賦體를 과격적으로 운용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賦體의 활용 또한 以文爲詩의 요소로 분석된다. 賦體의 활용은 韓愈의 다른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韓愈의 以文爲詩를 以賦爲詩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¹⁰⁰⁾ 〈南山〉의 賦體 활용에 대하여 方東樹는 韓愈의 〈南山〉 시는 “〈京都賦〉에서 나왔고”, “〈京都賦〉의 체재를 옮겨 놓은 것 같다.”라고 평가하였으며¹⁰¹⁾, 沈德潛은 韓愈 시에 대해 “韓愈의 시는 원래 漢賦에 근원을 두고 있다.”¹⁰²⁾고 언급하였다. 본래 賦는 중국 고전시가에 있어 하나의 작시 수단이다. 하지만 賦는 은유적으로 시상을 일으키는 비홍과 달리 직설하는 방식으로 점차 산문의 영역에 가까운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半詩半文으로 여겨진다. 賦는 漢賦에서 唐代에 율시의 영향을 받은 律賦가 주류를 이루

99) 이영주, 임도현 역해, 《완역 한유시전집(下)》, 도서출판역락, 2019, p.473

100) 羅聯添, 〈論韓愈古文幾個問題〉, 《唐代文學研究》1992 第3輯. p.350.

周子翼, 〈“以文爲詩”本義 考論〉, 《江海學刊》, 2022.06. p.231.

101) 方東樹, 《昭昧詹言》 卷1, 〈通論五古〉: “南山詩從京都賦來.”, “蓋以京都賦體而移之于此也.”; 羅聯添, 〈論韓愈古文幾個問題〉, 《唐代文學研究》1992 第3輯. p.350에서 재인용

102) 沈德潛, 《歸愚文鈔》 卷15, 〈與陳恥庵書〉: “昌黎之詩, 原本漢賦.”; 羅聯添, 〈論韓愈古文幾個問題〉, 《唐代文學研究》1992 第3輯. p.350에서 재인용

있으며 宋代에는 歐陽修의 고문운동 등의 영향을 받아 시에서의 산문화와 함께 文賦가 성행하여 점차 산문화되어 갔다. 이영주와 임도현은 〈南山〉에서의 賦體 활용은 《詩經》 혹은 〈文賦〉에서 보이는 구법이라 평하였고 清代의 문인들은 그 근원을 漢賦에서 찾는데 이러한 양상은 韓愈의 시에서의 賦體는 唐代 성행하던 풍격이 아닌 것으로 시기적으로 앞선 《詩經》, 漢賦 혹은 이후 宋代 성행한 文賦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以文爲詩한 산문구법은 복구를 단구로 만들어 산문구로 시를 지은 것으로 고의로 대구를 피하였다고 분석한다. 이와 관련하여 1절에서 以文爲詩의 서술성에 대하여 분석하며 流水對를 언급하여 잠시 살펴본 바 있다.

流水對는 일종의 對仗이기에 고의로 對仗을 피했다는 내용과는 상응하지 않지만, 복구를 하나의 구로 즉, 산문구로 만드는 양상은 以文爲詩의 내용과 상응한다. 이로 인하여 韓愈 시의 동일한 구절에서 流水對로 분석되기도 하는 구절이 以文爲詩의 예로 설명되기도 한다. 胡震亨은 流水對를 “兩句只一意”라하며 “두구가 하나의 뜻이다.”라고 설명하는데 구의가 연속되는 특징은 고시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한나라 사람들의 시에서 구를 따낼 수 없는 것은, 장법은 혼성하고, 구의 뜻이 연속되어 작품 전체가 교묘한데다가 산만함은 하나도 없어서 부미함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漢人詩不可句摘者, 章法渾成, 句意聯屬, 通篇局妙, 無一無蔓, 不著淳靡故耳.¹⁰³⁾

胡應麟은 漢代의 시에서 구를 따낼 수 없는 이유를 장법이 혼성하고, 句意가 연속되기 때문이라 말하였다. 句意가 이어지는 산문구의 모습은 비단 以文爲詩의 산문적 요소가 아닌 고시에서도 그 양상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일종의 대장법으로서 활용되어 唐詩에서도 그 활용을 확인할 수 있다.¹⁰⁴⁾ 韓愈의 다른 시에서 고의로 대구를 피하여 산문구로 작시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程千帆은 〈韓愈以文爲詩說〉에서 強幼安이 韓愈 시 〈此日足可惜贈張籍〉¹⁰⁵⁾의 “淮之水舒舒, 楚山直

103) 胡應麟, 기태완 등 역주, 《호응린의 역대한시 비평》,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p.136.

104) 강민호, 〈流水對의 美學 研究〉, 《中國文學》 第76集, 2013.

叢叢”구절을 ‘고의로 대구를 피했다.’라고 지적한 것을 以文爲詩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며, 복구를 단구로 만드는 것은 바로 고문이 時文과 다른 특징이라고 말한다.¹⁰⁶⁾ 같은 맥락에서 김지영은 施補華가 韓愈의 고시에 대해 “단구의 행문을 사용하여 필력이 웅건하다.”¹⁰⁷⁾고 한 평가는 대구의 짜임새 있는 구식을 벗어나서 오히려 자유롭고 힘 있는 경지를 추구했음을 말한 것이며 吳可의 “대구를 공교하게 하지 않을지언정 기세를 약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한 언급 또한 施補華의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고 말한다.¹⁰⁸⁾ 나아가 근인 학자들이 말하는 以文爲詩의 특징으로 단구를 사용하고 대구를 사용하지 않은 점은, 대구를 단구로 만드는 것은 시와 대비되는 고문의 특징이고 시 속에 대구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시의 리듬과 구식에서 벗어나게 되어 산문화된 느낌을 가지게 한다고 말하며 以文爲詩의 특징에 대해 서술한다.¹⁰⁹⁾ 韓愈의 시에 대한 평을 통해 복구를 단구로 운용하는 것이 고문의 특징이며 以文爲詩의 특징으로 의도적으로 대구를 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以文爲詩로 평가되는 작품들은 형식적인 면에서 대구의 기피 혹은 허사, 賦體의 활용(漢賦 또는 후대의 文賦)등 唐代의 주된 작시 경향과는 다른 수법으로 지은 시인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여 규정한 以文爲詩의 특징 또한 대다수 唐代 율시의 주된 풍격 혹은 격식과의 비교에서 두드러진 특징인 것임을 알 수 있는데, 〈南山〉에 대한 비평에서 확인되는 賦體 활용의 기원을 《詩經》 혹은 漢賦라고 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以文爲詩의 형식상 특징은 전대의 시에서도 볼 수 있으며 唐代에서도 비단 韓愈의 시 뿐만이 아닌 陶淵明, 杜甫를 포함하여 전대 문인들의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05) 고팔미는 〈此日足可惜贈張籍〉은 한 개의 대우도 없으며, 애타게 그리던 장적을 겨우 하루 동안 만난 감회를 거침없이 써내려갔기 때문에 문장 쓰듯 의미진달에 중점을 두었다고 분석하며 “此日足可惜,此酒不足嘗.”구절과 “淮之水舒舒,楚山直叢叢”은 고의로 대구를 피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고팔미, 〈韓愈의 “以文爲詩”와 그 영향〉, 《中國學》 第38輯, 2011, p.109.

106) 程千帆, 《歷代進士行卷與文學, 古詩考察》, 武漢大學出版社, 2009. pp.186-187.

107) 施補華, 《峴傭說詩》: “退之七古, 多用單行, 退之筆力雄勤”, 王夫之等撰, 丁福保編, 《清詩話》, 明倫出版社, 民國60年, p.988.

108) 김지영, 〈中國 古典詩歌의 散文的 要素 受容 樣相-中唐에서 北宋까지의 以文爲詩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112.

109) 김지영, 〈中國 古典詩歌의 散文的 要素 受容 樣相-中唐에서 北宋까지의 以文爲詩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112.

以文爲詩의 형식적 특징으로 평가되는 시에서의 산문 수법의 활용 양상 또한 以文爲詩의 내용적 특징과 마찬가지로 이미 韓愈 보다 앞선 시기의 문인들의 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때로는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양상들이다. 즉, 以文爲詩의 내용적·형식적 특징은 그 시작이라 평가되는 韓愈 시의 고유한 특징이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다만, 임도현은 韓愈의 고시에 대하여 一韻到底 하는 등 독특한 압운법을 활용했다고 평하는데,¹¹⁰⁾ 이는 韓愈 고시의 특징이라고 할 만하며 필자는 오히려 이러한 특징이 以文爲詩와 관련이 있다 생각한다. 이는 후에 다시 기술하고자 한다.

以文爲詩의 특징들은 以文爲詩의 문을 산문으로 규정하여 韓愈의 시에서 볼 수 있는 산문적 요소를 귀납하여 특정화한 것인데, 以文爲詩의 양상이 다른 문인들의 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은 현재 以文爲詩에 대한 규정이 잘못되었을지 모른다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以文爲詩의 시작에 대한 이설을 검토하고 以文爲詩의 ‘문’에 집중하여 문을 산문으로 규정하여 분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110) 이영주, 임도현 역해, 《완역 한유시전집(下)》, 도서출판역락, 2019. p.731.

II. 以文爲詩 개념 정립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선행연구와 전인들의 관련 언급들을 바탕으로 현재 以文爲詩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韓愈의 시를 비평하며 처음으로 등장하였던 평어인 以文爲詩는 韓愈보다 앞선 시기의 문인 혹은 고시들에서도 그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에 以文爲詩의 시작에 대한 제가들의 異說들이 존재한다.

1. 以文爲詩의 시작에 대한 諸說이 지닌 모순

以文爲詩의 특징은 《詩經》과 《楚辭》에서 시작되었는데, 시 속에 의론과 설리의 성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대의 오언시, 그 이후 건안·황초·정시 시기의 많은 저명한 작가의 시 속에 以文爲詩의 성격이 현저한 예가 적지 않다. 진대의 현언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위진남북조 시기 시인들의 작품 가운데는 도연명의 성취가 가장 높다. 유독 도연명 시에는 의론이 많고 산문식 시구도 가장 많다. 당대 시인 중 송대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사대작가는 두보·백거이·한유·이상은이다. 그들 중 어느 작가의 시에 以文爲詩의 작품이 없는가? 以文爲詩는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다만 송대에 극성했을 따름이다.¹¹¹⁾

위 글은 吳小如의 以文爲詩에 관한 언급으로 그가 규정하는 以文爲詩 또한 시속에 의론과 설리의 성분이 있는 것과 산문식 시구가 보이는 것으로 다른 선행연구들의 정의와 본고에서 검토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그는 以文爲詩는 《詩經》과 《楚辭》를 시작으로 역대 중국 고전시가 작품에서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예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以文爲詩는 魏晉南北朝 陶淵明의 시에서는 물론 宋代 시풍에 영향을 준 杜甫, 白居易, 韓愈, 李商隱에게도 확인된다고 吳小如是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高建新은 陶淵明을 以文爲詩의 시작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는데,¹¹²⁾ 우선 陶淵明의 〈桃花

111) 吳小如, 〈宋詩漫談(上)〉, 《文史知識》 1990第1期. p.14

112) 高建新, 〈以文爲詩始爲陶淵明〉, 《內蒙古大學學報》2002年4期, pp.42-45.

源詩〉 시를 살펴보자.

陶淵明 〈桃花源詩 도화원시〉

- 1 嬴氏亂天紀, 영씨가 하늘의 기강을 어지럽혀
- 2 賢者避其世. 현자가 그 세상을 피해 갔다
- 3 黃綺之商山, 하황공과 기리계는 상산으로 갔는데
- 4 伊人亦云逝. 그 사람들 또한 세상을 떠났다 한다
- 5 往跡浸復湮, 간 자취 점점 또 없어지고
- 6 來徑遂蕪廢. 온 길은 드디어 황폐해 없어졌다
- 7 相命肆農耕, 서로 타이르며 농경에 힘 다하고
- 8 日入從所憩. 해 빠지면 쉬는 곳에 따라들 간다
- 9 桑竹垂餘蔭, 뽕나무와 대나무는 가지지 않는 그늘 드리우고 있는데
- 10 菽稷隨時藝. 팔이니 기장이니를 철에 따라 심는다
- 11 春蠶收長絲, 춘잠을 쳐서 긴 명주실 거두고
- 12 秋熟靡王稅. 가을 곡식 익어도 왕에 바치는 세금이 없다
- 13 荒路曖交通, 거친 길 아득하게 엇갈려 뻗쳐 있고
- 14 鷄犬互鳴吠. 닭과 개는 서로들 울부짖는다
- 15 俎豆猶古法, 제물을 차리는 것 아직도 옛 법대로이고
- 16 衣裳無新製. 입은 옷은 새로운 것이 없다
- 17 童孺縱行歌, 어린것들은 마음대로 다니며 노래부르고
- 18 斑白歡遊詣. 반백된 늙은이들은 기뻐하며 놀러 찾아다닌다
- 19 草榮識節和, 풀이 자라나면 계절 온화함 알고
- 20 木衰知風厲. 나무가 마르면 바람 세차짐 안다
- 21 雖無紀曆誌, 책력의 기록이 없기는 하지만
- 22 四時自成歲. 네 계절은 돌아 절로 한 해 이루어진다
- 23 怡然有餘樂, 기꺼웁게도 가지지 않는 즐거움 있으니
- 24 于何勞智慧. 애써 가며 무엇에 지혜를 쓰랴
- 25 奇蹤隱五百, 기이한 발자취 오백 년 동안이나 숨어 있다가
- 26 一朝敞神界. 하루아침에 신령한 세상이 밖으로 열이었다
- 27 淳薄既異源, 순후하고 각박함 근원 달리하는 거라
- 28 旋復還幽蔽. 곧이어 또 다시 깊이 가리워져 버렸다
- 29 借問游方士, 여보소 세속에 사는 이여
- 30 焉測塵囂外. 어찌 티끌 세상 시끄러운 곳 밖을 헤아려 알겠소
- 31 願言躡輕風, 원컨대 가벼운 바람 밟고서
- 32 高舉尋吾契. 높이 올라가 마음속 기약을 찾게 되어지이다

제1구부터 제6구는 진나라 황제 嬴氏의 폐정으로 현자는 떠났으며 하황공과

기리게도 떠났다고 말하며 도화원에 사는 이들도 이때 도화원으로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도화원에 가는 길은 찾을 수가 없어서 세상과 단절되었음을 말한다. 제7구부터 제28구까지는 도화원에 사는 이들이 속세에 얽매이지 않고 평화로이 사는 모습들을 묘사한다. 제29구부터 결구까지는 陶淵明 또한 속세에서 벗어나 살고 싶다며 의론을 전개하며 시를 끝마친다.

方東樹는 이 시에 대하여 “하나의 사건을 서술한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곡절을 두루 갖추었고, 장법의 배치가 한 편의 문장을 완성한 것 같다.”¹¹³⁾라고 평가하는데, 그 내용은 그가 韓愈의 〈八月十五夜贈張功曹〉과 〈山石〉를 “한편의 고문장법이다.”, “서사가 간략하고 빼어나 고문 수필같다.”라고 평가한 내용과 맞닿아 있다.¹¹⁴⁾ 또한, 김지영은 韓愈의 〈桃花圖〉가 서사와 의론을 함께 사용하여 서사체 작법으로 쓴 것은 도화원시의 장법을 따른 것이라 말하며, 陶淵明의 산문장법은 韓愈에게 직접 영향을 주었다고 말한다.¹¹⁵⁾ 더불어 앞서 살펴보았던 陶淵明의 〈飲酒詩·其九〉에서 보이는 문답체의 활용 그리고 서사와 의론은 以文爲詩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언급되기도 한다.¹¹⁶⁾

陶淵明의 시에서 以文爲詩의 형식상의 특징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시 〈止酒술을 끊으리〉에서 매 구절 “止”자가 반복되는데 의미가 있는 실자와 의미가 없는 허자가 섞여 있다. 이와 관련하여 錢鍾書 역시 “韓愈의 오언 구법은 본래 陶淵明에서 얻은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며 “陶淵明의 〈止酒〉시는 韓愈의 以文爲詩의 풍격을 이미 연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¹¹⁷⁾ 즉, 陶淵明의 시는 以文爲詩의 내용적 측면뿐만 아닌 형식상에서도 그 以文爲詩의 특징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高建新은 〈以文爲詩始爲陶淵明〉에서 以文爲詩를 정의하며 陶淵明의 성품과 관계하여 설명한다.

113) 羅聯添, 〈論韓愈古文幾個問題〉, 《唐代文學研究》 第3輯, 1992. p.353에서 재인용

114) 羅聯添, 〈論韓愈古文幾個問題〉, 《唐代文學研究》 第3輯, 1992. p.353에서 재인용

115) 김지영, 〈中國 古典詩歌의 散文的 要素 受容 樣相-中唐에서 北宋까지의 以文爲詩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145.

116) 김지영, 〈中國 古典詩歌의 散文的 要素 受容 樣相-中唐에서 北宋까지의 以文爲詩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147.

117) 김지영, 〈中國 古典詩歌의 散文的 要素 受容 樣相-中唐에서 北宋까지의 以文爲詩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148에서 재인용.

소위 以文爲詩는 산문의 편장결구, 구법, 허사, 허자를 시에 넣어 시가를 산문처럼 평이하고 자연스러우며, 자연스레 오묘함을 드러내게 하여, 시원하고 순통하게 일을 묘사하고 감정을 서술한 것으로, 이 모든 것이 도연명 시에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以文爲詩의 운용은 도연명 시를 친절하고 평화롭고 인심에 다가서게 하고, 일상적인 일을 서술하는 것처럼 진실한 감동을 주었는데, 바로 여기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 점은 도연명의 사람됨과 시가의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풍격이 잘 조화된 것이다.¹¹⁸⁾

그가 정의하는 以文爲詩 또한, 산문의 편장결구, 구법, 허사 사용, 서술성 등 여타 다른 학자들의 분석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陶淵明의 시에서 그 활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以文爲詩한 작시 경향은 韓愈뿐만이 아닌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吳小如의 언급처럼 杜甫와 白居易의 시에서도 그 활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¹¹⁹⁾

許總과 胡小石은 杜甫의 시를 以文爲詩의 시작으로 설명하고 있는데,¹²⁰⁾ 이는 전인의 언급에서 韓愈와의 전승관계를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기도 하며, 杜甫의 시에서도 以文爲詩의 특징으로 분석되는 산문의 수법이 많이 보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韓愈가 평생토록 마음으로 본받고 힘써 따른 사람은 오직 李白과 杜甫 두 사람뿐이다.

韓昌黎生平所心摹力追者, 惟李,杜二公.¹²¹⁾

한위 이전 시격은 간고하여 세간의 모든 세세한 일과 긴 이야기는 다 기록할 수가 없었다. 그 기세는 오래도록 이어지다 점점 약해졌다. 두시가 출현하자 점점 영역이 넓혀져 천하의 상황을 모두 기록할 수 있었다. 한유가 이를 세상에 떨치고, 소식이 다시 이를 떨치자 情과 事를 모두 기록하게 되었다. 그 격식은 점점 거칠어졌다.

118) 高建新, 〈以文爲詩始爲陶淵明〉, 《內蒙古大學學報》, 2002年4期, p.42.

119) 吳小如, 〈宋詩漫談(上)〉, 《文史知識》 1990第1期. pp.14-15.

120) 許總, 〈杜甫以文爲詩論〉, 《杜詩學發微》, 南京出版社, 1989, pp.270-278.
莫礪鋒, 《杜甫詩歌演講錄》,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7. p.275.

121) 趙翼, 《甌北詩話》卷三; 郭紹虞 編選, 富壽蓀 校點, 《清詩話續編》, 木鈴出版社, 民國72年, p.1164.

漢魏以前,詩格簡古,世間一切細事長語,皆著不得.其勢必久而漸窮,賴杜詩一出,乃稍爲開擴,庶幾可盡天下之情事.韓一衍之,蘇再衍之,於是情與事,無不可盡.而其爲格,亦漸粗矣¹²²⁾

趙翼은 《甌北詩話》에서 韓愈가 진정 본받고자 했던 사람은 李白과 杜甫라고 말하며 杜甫와 韓愈와의 전승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李東陽은 “杜詩가 출현하고 韓愈와 蘇軾이 이를 떨치자 정과 사를 모두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한 바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李東陽은 以文爲詩의 시작을 杜甫의 시로 보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¹²³⁾ 李東陽이 以文爲詩의 시작이라는 분석은 以文爲詩에 내재된 서사성과 趙翼과 李東陽의 언급에서 볼 수 있는 杜甫와 韓愈의 전승관계를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杜詩에 나타나는 서사와 의론을 근거로 두보를 以文爲詩의 시작으로 설명하는 이들도 있다.

호소석은 “두보의 북정은 시사를 다루고 의론을 다루어 시가의 영역을 허물어, 시와 산문을 하나로 통합했다.”고 말하는데 시사를 다루거나, 국가의 대사를 다루는 것부터 각종 의론을 표현하는 것은 전부 산문의 영역이다. … 그가 〈북정〉이 시의 영역을 허물었다는 말은 산문의 기능을 시로 끌어들이는 것이다.¹²⁴⁾

胡小石은 杜甫의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사성과 의론을 설명하며, 의론과 서사는 산문의 기능이지만 이를 시가에서 행하며 시의 울타리를 허물고 시가의 기능을 확장시켰다고 말한다. 胡應麟은 《詩藪》에서 杜甫의 〈北征〉을 평하며 장편 서사의 시라고 말하기도 하며 장편 서사에 있어서 고급에서 杜甫뿐이라는 평가를 하는데 모두 杜詩에서의 서사성을 강조하는 언급들이다.¹²⁵⁾ 이렇듯 산문 수법의 以文爲詩를 확인할 수 있는 杜甫의 작품으로는 〈寄岑嘉州〉를 들 수 있다.

122) 李東陽, 李慶立校釋, 《懷麓堂詩話校釋》, 人民文學出版社, 2008. p.204.

123) 김지영, 〈中國 古典詩歌의 散文的 要素 受容 樣相-中唐에서 北宋까지의 以文爲詩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150.

124) 莫礪鋒, 《杜甫詩歌演講錄》,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7, p.275.

125) 胡應麟, 《詩藪》內篇: “杜之北征述懷皆長福叔事.” “惟長篇敘事,古今子美.”

기태완등 역주, 《호응린의 역대한시 비평》,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p.145; p.269.

杜甫 〈寄岑嘉州 가주의 잠자사에게 부치다.〉

[제1단]

不見故人十年餘, 친구를 보지 못한 게 십 년 남짓
不道故人無素書. 친구에게서 편지가 없을지는 몰랐다.
愿逢顏色關塞遠,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변새가 멀었는데
豈意出守江城居. 자사로 나와 강가 성에 살 것을 생각이나 했겠는가?

[제2단]

外江三峽且相接, 외강과 삼협이 그래도 서로 접하거늘
斗酒新詩終日疏. 말술과 새 시는 끝내 질로 소원했으니
謝朓每篇堪諷誦, 사조의 매 시편은 읊조릴 만하건만
馮唐已老听吹噓. 풍당은 이미 늙어 불어 주는 대로 따를 뿐.

[제3단]

泊船秋夜經春草, 배를 가을밤에 정박했다가 봄풀을 겪었는데
伏枕青楓限玉除. 푸른 단풍 숲에서 베개에 엎드렸으니 옥 섬돌과 떨어졌다.
眼前所寄選何物, 눈앞에 부칠 것으로 어떤 물건을 고를까?
贈子云安雙鯉魚. 그대에게 운안의 잉어 한 쌍을 드린다네.¹²⁶⁾

위 시는 杜甫의 〈寄岑嘉州〉로 칠언배율이다. 이영주가 분단한 2단과 3단은 평측의 배열과 대장법 등이 모두 배율의 격률에 부합한다.¹²⁷⁾ 하지만 칠언배율은 미련을 제외한 전체가 對仗을 이루어야 정격이지만, 제1단의 수련 “不見故人十年餘, 不道故人無素書.”는 對仗이 비정상적이라 지적하는데, 제1자부터 제4자는 일종의 對仗의 형태이지만 ‘不’자와 ‘故人’이 각 구절에 반복하여 나오고, 제5자 이하 세글자는 짝을 이루지 못하는데 이러한 시구는 고체의 시구에서 흔히 보인다고 말한다.¹²⁸⁾ 이 구절은 韓愈 시에서 고의로 대구를 피했다고 언급한 “此日足可惜, 此酒不足嘗.”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이영주는 浦起龍이 〈寄岑嘉州〉에 대하여 “이 시는 칠언배율이면서 예스러운 뜻을 띤 것으로, 유미하여 음송할만하다.”¹²⁹⁾라고 평한 것을 미련의 잉어의 비유가 고시에서 나온 것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126) 분단과 해석은 이영주의 분석을 따랐다. 이영주, 《두시의 장법과 격률》, 명문당, 2019, p.561.

127) 이영주 《두시의 장법과 격률》, 명문당, 2019, p.562.

128) 이영주, 《두시의 장법과 격률》, 명문당, 2019. pp.562-563.

129) 浦起龍, 《讀杜心解》, 卷五之三, 이영주 《두시의 장법과 격률》, 명문당, 2019. p.575에서 재인용

고체의 격률이 조성한 예스러운 풍격도 아울러 지적한 것이라 분석하며, 상대방에 대한 친근감을 보이고 자신의 심사를 솔직하게 전달하고자 고의적으로 배율체의 격률을 깨뜨렸다고 덧붙였다.¹³⁰⁾

이 밖에도 〈贈崔十三評事公輔〉나 〈放船〉 등의 작품은 배율임에도 불구하고 격구대나 엄밀하지 못한 對仗의 사용, 허사의 사용 등으로 인해 고체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영주는 杜甫의 근체시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양상을 근체시의 고체화라 평가하기도 하며, 杜甫의 고체시에서 볼 수 있는 근체시적 요소를 근체시의 고체화라고 분석한다.¹³¹⁾ 뿐만 아니라 浦起龍은 杜甫의 〈別蘇溪〉에 대해 산체와 변체의 혼용을 지적하였고¹³²⁾, 劉辰翁은 杜詩에 산문체의 어투가 사용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¹³³⁾ 이를 통해 以文爲詩의 모습을 杜詩에서 확인할 수 있다.

唐代 杜甫와 韓愈 외에도 白居易 또한 以文爲詩한 작시를 했다고 평가받는다.¹³⁴⁾ 白居易는 〈新樂府序文〉과 〈與元九書〉에서 자신의 창작관을 밝혔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以文爲詩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뜻을 중시하고 수사를 고려하지 않았다...기록한 일이 핵심적이고 진실한 것은, 이를 채집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한 것이다...“이 작품은 황제, 신하와 백성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을 위해 쓴 것이지, 수사적인 글을 쓴 것이 아니다.”

繫於意，不繫於文。…其事核而實，使採之者傳信也。總而言之，爲君，爲臣，爲民，爲物，爲事而作，不爲文而作也。¹³⁵⁾

문장은 시대를 위해서 써야 하고, 시가는 일을 위해서 써야 함을 알았습니다

130) 이영주, 《두시의 장법과 격률》, 명문당, 2019. p.163.

131) 이영주, 《두시의 장법과 격률》, 명문당, 2019. pp.546.-594.

132) 浦起龍, 《讀杜心解》 卷五之三: “寓散行於駢體, 子美獨步.”

이영주, 《두시의 장법과 격률》, 명문당, 2019. p.567에서 재인용

133) 관련 내용은 본고의 14쪽 각주 48)을 참고할 것.

134) 許學夷, 《詩源辯體》 卷28; 김지영, 〈中國 古典詩歌의 散文的 要素 受容 樣相-中唐에서 北宋까지의 以文爲詩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159에서 재인용.

135) 白居易, 〈新樂府〉; 郭紹虞 主編, 王文生 副主編, 《中國歷代文論選》 第二冊, 上海古籍出版社, 2001, p.108.

始知文章合爲時而著, 詩歌合爲事而作.¹³⁶⁾

위의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白居易는 화려한 수사를 배격하고 진실한 서사와 뜻을 중시하였다. 또한 시는 事를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시의 기능을 중시한 白居易의 이러한 문예관은 胡小石이 설명한바 산문의 기능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며,¹³⁷⁾ 杜甫의 내용 방면을 계승한 시인으로 평가되기도 한다.¹³⁸⁾ 이에 일찍이 許學夷는 “白居易의 오언고시는 陶淵明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며, 서사가 상세하고 명료하며 의론이 통쾌한데, 이것은 모두 以文爲詩로 실로 송인의 문호를 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¹³⁹⁾

결국 以文爲詩의 시작은 韓愈 그 이전 문인들의 작품에서 확인되기도 하며, 여전히 관련된 다양한 관점들도 존재한다. 결국 以文爲詩 시작에 대한 이설의 존재는 ‘문’이 지닌 모호함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테다.

2. 文의 의미가 지닌 모호함

‘文’은 역사상 문학, 무늬 등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김지영은 문의 의미 변화 과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선진이래 중국 문인들의 문에 대한 용어의 개념 규정은 시대마다 달랐으며, 문학의 본질이나 공용성 또는 기능에 대한 문인들의 견해도 시대마다 달랐다. ... 위진 남북조 시기에 문은 시가나 사부 등의 운율이 있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 필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즉 운율이 없는 응용문의 문장인 필과 구분되어 운문에 가까운 문학형식을 가리키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당대 이후에는 시와 문이 상대적인 개념이 되어, 유운 형식의 것을 시라 부르고 무운 형식의 것을 문이라 부르게 된다. 즉 시가를 제외한 모든 형식의 글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의 의미는

136) 白居易, 〈與元九書〉; 郭紹虞 主編, 王文生 副主編, 《中國歷代文論選》 第二冊, 上海古籍出版社, 2001, p.98.

137) 관련 내용은 본고 39쪽 각주 124)를 참고할 것.

138) 陸侃如, 《中國詩史》, 人民大學出版社, 1983, pp.460-461.

139) 許學夷, 《詩源辯體》卷28; 김지영, 〈中國 古典詩歌의 散文의 要素 受容 樣相-中唐에서 北宋까지의 以文爲詩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159에서 재인용.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협의의 문이 되는 것이다.¹⁴⁰⁾

그는 魏晉南北朝시대까지 문은 운율이 있는 것(유운)으로 현재 시와 구별되어 산문으로 구분되는 필과 상반되는 시·사·부 등을 지칭하는 단어였지만 唐代에 들어 그 의미는 변화하여 문이 곧 시의 상대적인 개념이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그는 宋代 眞德秀가 《文章正宗》에서 문체를 사령, 의론, 서사, 시가로 분류하였는데,¹⁴¹⁾ 이는 當時 시가를 다른 문체와 구분하였으며, 시가를 제외한 나머지 문체는 모두 산문에 해당하는 문체로 분류하였다고 말한다.¹⁴²⁾ 하지만, 그와 다른 분석을 내놓은 학자도 존재한다.

한유의 노력으로 산문체를 필에서 문의 격식 안으로 편입시켰고, 고문이라 불렀다. 그가 말하는 문은 시, 부, 변체, 산체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필이라는 명칭을 소실시켰다. 당인 적어도 한유와 그의 추종자들은 시와 문의 대립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송인은 부를 문의 범주에 두었다. 〈困學紀聞〉 〈시평〉 전권에 평사부화가 있다. 왕응린은 (부)를 評詩에 넣지 않은 것이다. …당시의 문은 운의 유무로 분별하지 않았기에 많은 논쟁이 이어졌다. …원래 송 이전 시문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았고, 분명한 분별이 요구되기도 않았다. 심(전기), 진(사도), 유(극장)은 당시의 관념으로 전대를 평가하였기에 공도가 아닌 것이다. …대개 송이전의 시는 줄곧 문의 범주안에 있었고, 송인은 이론상 시와 문을 분별하였으나 사실상 분별하지 못하였다.¹⁴³⁾

朱自淸은 以文爲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문의 역사적 전개에 따른 의미 분석을 진행하였다. 물론 唐代 이전의 문에 대한 의미 분석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朱自淸은 김지영과 달리 宋 이전 시는 문의 범주 안에 있었고 宋에서도 사실상 시와 문의 대한 구분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김지영은

140) 김지영, 〈中國 古典詩歌의 散文的 要素 受容 樣相-中唐에서 北宋까지의 以文爲詩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18.

141) 관련 내용은 본고의 14쪽 각주 47)을 참고할 것.

142) 김지영, 〈中國 古典詩歌의 散文的 要素 受容 樣相-中唐에서 北宋까지의 以文爲詩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18.

143) 朱自淸, 《朱自淸古典文學論文集》, 上海古籍出版社, 1980, pp.95-97.

眞德秀의 문체 구분을 들어 宋代의 문과 시의 구분이 이미 상대적 개념이 되었다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眞德秀가 시에서의 의리 표방을 반대하던 문인이었음을 상기한다면 그의 문체 분류가 대표성을 지니기에 부족함을 쉬이 짐작할 수 있다.¹⁴⁴⁾ 宋代 문인들의 언급에서 當代 시와 문의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한유는 문으로 시를 지었고, 두보는 시로 문을 지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웃음거리로 여겼다. 그러나 문 가운데 절로 시가 있어야 하고, 시 안에 절로 문이 있으면 이 또한 상생의 법이다. 문 가운데 시가 있으면 구와 시어가 정확하고 상세하게 되고, 시 안에 문이 있으면 문사와 음조가 유창해 진다.

韓以文爲詩, 杜以詩爲文, 世傳以爲戲. 然文中要自有詩, 詩中要自有文, 亦相生法也. 文中有詩, 則句語精確, 詩中有文, 則詞調流暢.¹⁴⁵⁾

陳善은 문과 시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지만 문과 시의 사조가 유창하게 되려면 서로 상생하여야 함을 말하는데 朱自淸이 분석하였듯 분명 이론적으로는 시와 문에 대한 분별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그 분별은 모호하였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서론에서 언급하였던 魏慶之의 《詩人玉屑》에서 沈括과 王存은 韓愈의 시가 ‘압운한 문 일뿐’ 시가 아니라고 하는 반면, 呂惠卿과 李常은 시인 이래로 韓愈만한 이가 없다고 비평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¹⁴⁶⁾ 當代 문인들의 언급들을 살펴본다면 宋代 시와 문의 분별은 존재하였지만 문인별 그 경계에 대한 인식은 상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以文爲詩의 문을 현대적 의미의 산문으로 규정하여 분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周子翼 또한 以文爲詩의 문은 현대의 산문을 뜻하는 것이 아닌 六義 중 賦를 지칭하는 것으로 比, 興의 수법을 사용하지 않고 뜻 혹은 내용을 직접적 서술한 것(直陳)이라고 말한다.¹⁴⁷⁾

以文爲詩의 시작에 대한 제가들의 異說은 대다수 중국문학이론이 그러하듯

144) 이병한, 《중국고전시학의 의해》, 문학과 知性社, 1992, p.192.

145) 陳善, 《捫蝨新語》; 고팔미, 〈韓愈의 “以文爲詩”와 그 영향〉, 《中國學》 第38輯, 2011. p.96에서 재인용.

146) 魏慶之, 《詩人玉屑》卷之十五: “存中曰: 韓退之詩乃押韻之文耳, 雖健美富贍, 而格不近詩. 吉甫曰: 詩正當如是, 我謂詩人以來, 未有如退之者. 正仲是存中, 公擇是吉甫, 四人交相詰難, 久而不決.” 본고 3쪽 각주 7) 참고할 것.

147) 周子翼, 〈“以文爲詩”本義 考論〉, 《江海學刊》, 2022.06. p.231.

모호한 의미 범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료되는데 이에 以文爲詩의 문의 의미 범주가 사적 흐름 속에서 그 의미가 변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以文爲詩에 대한 의미 재탐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以文爲詩의 문은 고문이며 고문은 곧 산문을 지칭한다는 논리로 以文爲詩의 문을 산문으로 규정하여 以文爲詩의 개념 정립을 시도하고 있다.¹⁴⁸⁾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以文爲詩의 ‘文’이 시와 대비되는 현대적 의미의 산문으로 지칭될 수 있는가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문은 시를 포함하는 개념이었으나 서서히 그 장르적 구분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특정 시기, 특정 문인에게서 사용된 문의 범주를 확정하기란 쉽지 않다고 하겠다. 결국 대다수의 논의들은 문을 현대적 의미 혹은 특정 의미로 국한시켜 以文爲詩 개념 정립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곧 以文爲詩의 ‘文’의 의미와 以文爲詩의 의미에 대한 왜곡을 낳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以文爲詩의 특징은 율격이 확립되기 전인 여러 고시에서도 그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었거니와 以文爲詩의 시작에 대한 다양한 이설들의 존재한다. 또한 以文爲詩가 평어로서 처음 등장한 《後山詩話》에는 “退之以文爲詩, 子美以詩爲文”¹⁴⁹⁾을 병기하여 그 구분을 하고 있으며 以文爲詩를 비판하였다는 嚴羽가 추송한 杜甫가 대표적인 문인 혹은 그 시작으로 분석되는 것은 결국 朱子淸이 설명한 바 문과 시의 모호한 구분, 문이 지닌 모호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148) 김지영, 〈中國 古典詩歌의 散文的 要素 受容 樣相-中唐에서 北宋까지의 以文爲詩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p.12-29.

고괄미, 〈韓愈의 “以文爲詩”와 그 영향〉, 《中國學》 第38輯, 2011. pp.102-113.

149) 何文煥, 《歷代詩話》, 中華書局, 1983, p.309.

III. 결론

韓愈 시의 대한 평어로서 처음 등장한 以文爲詩는 宋詩를 대변하는 하나의 중국시가문학용어으로써 정착되었다. 또한, 以文爲詩의 시작을 韓愈라고 말한 전인의 언급과 以文爲詩의 문은 시와 대비되는 산문으로 규정되어 韓愈 시에서의 산문적 요소로 以文爲詩를 특정하여 정의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특정된 以文爲詩는 韓愈의 시 뿐만 아니라, 《詩經》과 《楚辭》를 비롯하여 唐代 여러 문인들의 시에서도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앞서 필자가 언급한 몇 가지 모순을 지니게 되었는데, 이에 필자는 以文爲詩의 문은 고문을 의미하지만 當代의 고문이 현대적 의미의 산문과는 완전히 합치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하나의 가설로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韓愈는 변려문을 배척하고 고문운동을 제창하였으며 그가 말하는 고문은 변려문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문을 의미한다. 그리고 唐代를 포함하여 이전의 문은 시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변려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율격이 적용되지 않은 고시일 것이다. 北宋시기 韓愈의 고문운동 정신을 이어받은 歐陽修의 시문혁신운동의 영향아래 韓愈의 시를 학습한 문인들은 韓愈가 말하는 고문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이며, 朱自淸의 언급처럼 문과 시의 사실상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시기 처음으로 언급된 以文爲詩는 문은 韓愈의 고문을 의미하고 시는 율시 혹은 변려문의 영향을 받은 율격이 적용되기 시작한 시를 의미했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後山詩話》에 기록된 “시와 문은 각각 체가 있는데, 韓愈는 문으로서 시를 지었고(以文爲詩), 杜甫는 시로서 문을 지었으니(以詩爲文) 공교하지 못하다.”¹⁵⁰⁾라고 한 언급은 그 내용처럼 단지 시와 고문의 체가 혼용된 양상을 비평한 언급일 것이다.

즉, 본문에서 언급하였듯 杜甫의 시와 韓愈의 시에서 고시와 율시의 형식이 혼용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韓愈의 고문은 고시를 포함한 개념으로 이와 관련한 “退之以文爲詩, 子美以詩爲文.”에 대한 평가로 보인다. 이후 사적 흐름 속에서 문과 시의 분별은 현대적 의미와 같은 방향으로 분화되었고, 이에 따라 후

150) 何文煥, 《歷代詩話》, 中華書局, 1983, p.309.

인들이 바라본 以文爲詩의 문은 산문으로 변화되며 以文爲詩의 의미 범주 또한 확장되었을 것이다. 宋詩는 의문시와 형식에서의 산문화의 특징이 보이는데 이러한 산문적 특징이 以文爲詩의 의미 범주로 편입되었다고 하겠다.

본고는 以文爲詩의 개념과 이에 내재된 다양한 속성들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 시기 존재했던 ‘문’에 대한 개념과 인식에 대한 보다 정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는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기태완 등 역주, 《호응린의 역대한시 비평》,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 송용준, 오태석, 이치수, 《宋詩史》, 역락, 2004.
- 이병한, 《중국고전시학의 의해》, 문학과 知性社, 1992.
- 이영주, 《두시의 장법과 격률》, 명문당, 2019.
- 이영주, 임도현 역해, 《완역 한유시전집(上)》, 도서출판역락, 2019.
- 이영주, 임도현 역해, 《완역 한유시전집(下)》, 도서출판역락, 2019.
- 요시카와 고지로, 호승희 역, 《송시개설》, 東文選, 2007.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하)》, 국학자료원, 2006.
- 郭紹虞 主編, 王文生 副主編, 《中國歷代文論選》, 上海古籍出版社, 2001.
- 郭紹虞 編選, 富壽蓀 校點, 《清詩話續編》, 木鈴出版社, 民國72年.
- 楊伯峻 譯注, 《孟子譯注》, 中華書局, 2008.
- 王夫之等撰, 丁福保編, 《清詩話》, 明倫出版社, 民國60年.
- 王水照, 《宋代文學通論》, 河南大學出版社, 1997.
- 魏慶之 著, 王仲聞 點校, 《詩人玉屑》(下), 中華書局, 2007.
- 劉勰 著, 詹鏜 義證, 《文心雕龍義證》, 上海古籍出版社, 1989.
- 陸侃如, 《中國詩史》, 人民大學出版社, 1983.
- 李慶立 校釋, 《懷麓堂詩話校釋》, 人民文學出版社, 2008.
- 莫礪鋒, 《杜甫詩歌演講錄》,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7.
- 張健, 《滄浪詩話校箋》, 上海古籍出版社, 2012.
- 錢基博, 〈韓集籀讀錄第六〉, 《論韓愈》, 華正書局, 1935.
- 錢仲聯, 《韓昌黎詩繫年集釋》, 上海古籍出版社, 1984
- 丁福保 編, 《清詩話》, 明倫出版社, 民國60年.
- 丁仲祐, 《續歷代詩話》, 藝文印書館, 民國乙卯.
- 程千帆, 《歷代進士行卷與文學, 古詩考察》, 武漢大學出版社, 2009.

- 朱自清, 〈論以文爲詩〉, 《朱自清古典文學論文集》, 上海古籍出版社, 1980.
- 夏敬觀, 〈說韓愈〉, 《唐詩說》, 河洛都序出版社, 民國64.
- 何文煥, 《歷代詩話》, 中華書局, 2001.
- 許總, 《杜詩學發微》, 南京出版社, 1989.

2. 논문

- 강민호, 〈流水對의 美學 研究〉, 《中國文學》 第76集, 2013.
- 고팔미, 〈韓愈의 “以文爲詩”와 그 영향〉, 《中國學》 第38輯, 2010.
- 신재환, 〈《甌北詩話》의 蘇軾 詩에 대한 시학적 觀點 探討〉, 《퇴계학과 유교문화》 51권, 2012.
- 심성호, 〈離騷의 形象思惟〉, 《동방한문학》 제11집, 1995.
- 오태석, 〈장르사적 觀點에서 본 소식의 문예이론과 시.〉, 《中語中文學》 제21집, 1997.
- 전가람, 〈翁方綱의 詩學觀 小考 - 두보(杜甫)와 한유(韓愈)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건지인문학》 제31집, 2021.
- 김지영, 〈中國 古典詩歌의 散文의 要素 受容 樣相-中唐에서 北宋까지의 以文爲詩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高建新, 〈以文爲詩始爲陶淵明〉, 《內蒙古大學學報》, 2002年4期, 2002.
- 羅聯添, 〈論韓愈古文幾個問題〉, 《唐代文學研究》 第3輯, 1992.
- 馬茂軍, 〈“以文爲詩”話題與中國古典詩學的展開〉, 《華南師範大學學報》 2021年第5輯, 2021.
- 閻琦, 〈論韓愈的以文爲詩〉, 《西北大學學報》 1983年2期, 1983.
- 吳小如, 〈宋詩漫談(上)〉, 《文史知識》 1990年第1期, 1990.
- 王斯怡, 李寅生, 〈杜詩引用《詩經》探微〉, 《哈爾濱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第53期, 2019.
- 周子翼, 〈“以文爲詩”本義 考論〉, 《江海學刊》, 2022.
- 周子翼, 〈“以文爲詩”解讀悖誤析論〉, 《江西社會科學》 2022年第8期, 2022.

【ABSTRACT】

Poetry occupies a significant place in Chinese literary history, to the extent that China is often referred to as "the country of poetry." Among the different periods, Tang Dynasty poetry is considered as a pinnacle of Chinese classical poetry. However, during the Song Dynasty, there was criticism of a decline in poetry. This decline can be attributed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Song Dynasty poetry that emerged during that time. Unlike the previous emphasis on lyricism, Song Dynasty poetry tended to incorporate the individual assertions and opinions of the poets. Additionally, the form of poetry during this period departed from the strict rules of rhythmic poetry that were prevalent at the time, allowing for more freedom in structure. This trend is known as the "mountain culture of Song Dynasty poetry" and is represented by the term '以文爲詩', which soon became a literary term associated with Song Dynasty poetry.

The term '以文爲詩' first appeared in the commentary by HUANGTINGJIAN(黃庭堅) on "HOUSHANSHIHUA" 《後山詩話》 and in CHENSHIDAO's(陳師道) evaluation of HANYU's(韓愈) poetry. They expressed a somewhat skeptical view, stating that while poetry and prose have their respective forms, HANYU's(韓愈) poetry can be characterized as '以文爲詩', suggesting that it lacks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sophistication associated with poetry. It is worth noting that HUANGTINGJIAN(黃庭堅) eventually incorporated '以文爲詩' into his own works.

The initial mention of '以文爲詩' emerged in the evaluation of HANYU's(韓愈) poetry. However, later generations attributed the beginning of

'以文爲詩' to HANYU(韓愈), despite the fact that the works currently analyzed as utilizing the '以文爲詩' method were written by poets who preceded HANYU(韓愈). There are also discussions suggesting that TAOYUANMING(陶淵明) or DUFU(杜甫) may have been the initiators of '以文爲詩'. Interestingly, YANYU(嚴羽), a notable writer of the Song Dynasty, criticized '以文爲詩', yet it seems contradictory that DUFU(杜甫), whom YANYU(嚴羽) greatly admired, is analyzed as one of the initiators of '以文爲詩'. This contradiction can be attributed to the "ambiguous semantic categories" prevalent in Chinese literary theory. Therefore, in this paper, the author aims to review previous studies and the comments of scholars in order to seek a clearer understanding and classification of '以文爲詩' and its semantic category.